

지역주민의 문화마당

광명문화저널

광명문화저널 • 2002 가을 - 제 7호



표지인물 금복현

문화칼럼 - 기본에 충실한 음악교실 / **특집** - 지역축제를 제대로 살리는 길
기획 - 인생은 70부터 / **지역이야기** - 광명을 지키는 사람들 / **향토인물** - 이후원
탐방기획 - 과천문화원을 찾아서

가을
2002

광명문화원

가을저녁 시

- 김춘수

누군가가 죽어가나 보다
차마 다 감을수 없는 눈
반만 뜬채

이 저녁
누가 죽어가나 보다.

살을 저미는 이 세상
외롭 속에서
물같이 흘러간 그 나날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 터지게 부르면서 살아온
그 누가 죽어가나 보다

풀과 나무 그리고 산과 언덕
온 누리 위에 스며 번진
가을의 저 슬픈 눈을 보아라

정녕코 오늘 저녁은
비길수 없이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보다.....

김춘수(金春洙)

1922년 경상남도 충무 출생
1946년 『해방 1주년 기념 사화집』에 시 <애가>를 발표하면서 등단
1958년 제2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
1959년 아세아 자유문학상 수상
1982년 『김춘수 전집』 발간
대한민국문학상 및 예술원상 수상

시집 : 『구름과 장미』(1948), 『제1시집』(1954), 『꽃의 소묘』(1959),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1959), 『처용(處容)』(1974), 『남천(南天)』(1977), 『비에 젖은 달』(1980),
『처용 이후』(1982), 『꽃을 위한 서시』(1987), 『너를 향하여 나는』(1988)

Contents



표지인물 **금복현**
2000 경기 으뜸이 부채공예가

광 명 문 화 저널 제 7 호
발 행 처 광명문화원
발 행 인 정원조
편 집 인 윤 철
기 획 임재춘
편집위원 한옥현 / 정은경 / 정현혜 이은경 / 신란희 / 정현주 / 심평섭
감 수 이종락
발 행 일 2002. 1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 문화칼럼 / 기본에 충실한 음악교육
- 4 문화칼럼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 6 특집 / 지역축제를 제대로 살리는 길
- 8 특집 / 특색있는 지역축제
- 10 특집 / 경기도 지역축제
- 12 특집 / 계승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기획

- 14 인생은 70부터
- 16 어르신들을 위한 전국 이색 행사
- 18 영화 <죽어도 좋아>를 통해 본 노인들의 성(性)
- 20 광명의 활동하는 어르신....홍보부장 박종애님

지역이야기

- 21 광명을 지키는 사람들
- 22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1주년 기념
- 24 청소년 문화,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 26 광명문화의 요람 - 시민회관
- 28 시민회관, 문화공간으로서의 진정성을 위해
- 30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 의미와 모습
- 32 인터넷광명뉴스 창간 1주년 기념식

향토인물

- 34 이후원

탐방기획

- 36 과천문화원을 찾아서
- 38 근로복지관 "Showdance-춤을 보여줘봐~~"
- 39 우리지역 문화단체 - 광명농악보존회

문화의 뜰

- 40 절기를 통해 본 우리 문화
- 42 [만남] 광명 5동의 풍물지킴이 - 김선아
- 44 뉴욕스토리 3
- 46 10월 공연 및 행사소개
- 47 개봉영화 소개
- 48 타기관 소식

글모음

- 49 상도를 읽고 나서
- 50 낙엽
- 51 나의 마음 알아 줄 이는...

문화인물

- 52 책소개
- 53 10/11월의 문화인물(보한채 신숙주 / 김승호)
- 54 문화단신

광명문화원 및 광명문화원회원 소개 문화원 임원 및 가족 소개

기본에 충실한 음악교육

“
무엇보다 음악교육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초교육, 기본연습을 충실히 익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

윤용운 |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우리나라가 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 어려운 경제 때문에 오직 물질적 풍요에만 매달려오던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정신적 풍요로움과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변화하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가장 민감하고 우선적으로 진행 된 것이 음악교육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과거 2,30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에 피아노를 소장하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 하였으며 더욱이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했던 때였다. 이런 단면적인 부분만을 놓고 보더라도 과거 우리의 개인적인 음악교육은 사실 전무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요즈음 음악교육의 조기교육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것은 음악교육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언어, 체육, 미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재교육의 활성화로 온 나라가 영재 아니 천재들로 가득 차 미래에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최고를 차지 할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현상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일이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냉철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결국 피 교육자는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칫 어른들의 분위기에 휩싸인 과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에게 오히려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를 가져 올 수도 있음을 간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조기교육을 선택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아이, 부모가 함께 어떤 분야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음악교육은 사고나 연구만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고 반복적인 신체활동이 병행되므로 더욱 아이의 적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음악이 좋고 싫음을 떠나서 다른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연습을 해야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음악을 좋아할 수 있게 '음악은 재미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 스스로 음악은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다 많은 관심과 시간을 자연스럽게 음악활동에 두게 되면서 조금씩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아이들의 음악교육은 자발적인 형태로 발전 되면서 그 능력이 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단기적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 부작용 우려된다. 그 예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콩쿠르를 들 수 있다. 물론 콩쿠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요즘의 음악교육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꼭 콩쿠르를 위해서 음악 공부를 하는 것처럼 콩쿠르에 너무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 방학 중에는 몇몇 콩쿠르에 겹치기 도전을 하는가 하면 콩쿨에 입상을 하지 못하면 음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처럼 학부모나 아이들 자신조차도 초조해 하는 풍토는 대단히 잘못 되었다 본다. 꼭 필요한 시기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콩쿠르에 도전하여 자기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상대평가 해보는 것과 동년배 아이들의 능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오직 입상만을 위해 음악의 여러 기초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몇몇 연주곡만을 주입식으로 암보하여 되풀이 한다면 모래위에 성을 쌓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먼 미래의 음악 활동에 치명적 상처를 입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근시안적이고 단기간의 성과만을 생각하며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음악가로서의 미래는 불투명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음악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무엇보다 음악교육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초교육, 기본연습을 충실히 익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학생 수준의 연주능력을 외국 음악가들이 들으면 놀란다고 한다. 너무나 뛰어난 연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급 학생으로 갈수록 그 실력이 퇴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외국의 학생들과는 반대되는 경우이다. 점점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그 실력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당장의 효과만을 얻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기초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또한 앙상블 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체 음악의 장르 중에 솔로 개념으로 연주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거의 솔리스트를 위한 교육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앙상블 교육에 소홀히 한다는 점이다. 과연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교육이었는지를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아이들이 악가로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 그들이 하는 활동이 과연 현재 교육 시스템이 교육시킨 솔리스트로 활동하는지..... 아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앙상블을 통해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들에게 앙상블 교육을 소홀히 하였는가? 진정 누구를 위한 교육이며 무엇을 위한 교육이었는가?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장 유익하며 효과적인 교육은 과연 무엇인가?

올바른 인식을 통해 기본과 기초가 탄탄한 교육이다. 단기간의 성과만을 위해 자신의 단점을 그냥 지나쳐 그것이 미래의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음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꾸준한 인내로 기본기에 충실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아이들을 배출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최영 | 연희단거리패

제가 사는 밀양연극촌에는 아름다운 숲의 극장이 있습니다. 이름도 그대로 '숲의 극장'이지요. 해마다 밤 공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4월말에서 5월 초가 되면 어김없이 여기선 주말마다 재미있는 연극으로 관객을 맞이합니다.

폐교가 된 월산초등학교를 밀양시로부터 임대하여 터전을 만들기 시작한 때가 1999년 9월, 그때부터 우리는 교실에 온돌을 깔아 나무반 같은 방을 만들고, 교무실 책상 배치를 요리조리 바꿔가며 사무실을 만들고,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늘 골칫거리였던 의상들을 위한 방도 하나 내주고, 그 넓은 운동장에 마음껏 합판과 각목을 펼쳐놓고 무대장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그 어두컴컴한 지하 연습실이 커져만 가는 작품과 극단의 규모를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할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미련 없이 서울 생활을 접고 밀양으로 내려왔습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 시원하게 펼쳐진 운동장이 우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애정 어린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시간을 쪼개가며 연극촌 건설과 작품 제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맹렬히 달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때였고 우린 이미 새해가 밝아올 무렵 곳곳에 쌓아둔 곡식을 보고 흐뭇해하는 만석꾼만냥 여유 있게 2000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밀양연극촌을 연극을 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닌 연극을 즐기는 관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각의 운동장 한켠에는 나무가 등성등성 자라고 바닥엔 잔디가 깔려 있었지요. 거기에 덧마루를 깔아 무대를 만들고 길다란 벤치를 차례대로 깔아서 객석을 만드니 엉성하나마 야외 극장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식 개관에 앞서 우리끼리 리허설도 해보고 학생들을 불러다 시연회도 해보고 하면서 숲의 극장은 점점 더 극장다운 모습을 갖춰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비어있을 땐 그저 황량한 몇몇 구조물들이 들어선 터에 불과하지만 무대를 세우고 빛을 불어넣고 관객이 하나둘씩 들어와 앉아 객석을 채우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별세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정식 개관 날짜가 다가오며 우리의 걸음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로 만들어 놓 가게들을 찾아 예매처를 의뢰하며 포스터를 붙이고 시청, 경찰서 등을 돌며 홍보를 부탁하고 인근지역 신문들에 보도자료를 보

내고 손님맞이에 대비해 연극촌 곳곳을 말끔히 단장했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온 시장님의 구수한 한마디 “밀양 시민 여러분 인자 연극촌에서 하는 연극 공짜 아입니데이. 어른 오천원, 학생 삼천원. 안내문 연극 못보니데이” 그러시며 지갑에서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 사모님 것까지 두 장을 사고 객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아직도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기억입니다.

숲의 극장엔 몇 세 이하 관람불가 규정이 없습니다. 갓난 애기를 안은 엄마는 물론 손자 등에 업혀온 할머니도 모두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표소는 분명히 있지만 따로 정해진 출입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매표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표를 사고 들어가지요. 연극촌 교문 밖에서 수퍼를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는 이미 모든 작품을 한번 이상씩 다 보았고 오실 때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지만 꼭 표를 사십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천원 짜리를 꺼내 경로우대가격 삼천 원을 내시지요. 하지만 가끔 우리들과 밋지 않은 신경전을 벌이는 동네 어른들도 계십니다. 굳이 돈을 내고 객석에 들어가 앉지 않아도 매표소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는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다 볼 수 있지요. 그러다가 우리가 ‘할머니 들어가서 보실래요?’ 하고 여쭙면 ‘아이, 인자 집에 가 봐야 된다’ 하시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시지요. 그리고 어김없이 다음주에 나타나셔서 못 본 뒷부분을 마저 보시고는 들어가시죠.

여름밤 숲의 극장에선 공연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객석 둘레로 모깃불을 피우는 일과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들을 쫓는 일이지요. 그래도 부족하면 한 친구는 강통에 모깃불을 피워 공연 내내 객석 주위를 맴돌고 또 한 친구는 매미 많은 나무로 올라가 공연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매미를 쫓고 있지요. 처음엔 비가 오면 부득이 연습실로 옮겨서 반쪽 짜리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대를 완전히 덮는 지붕 공사가 끝난 후로는 비에도 끄떡없습니다. 메이저리그 돔구장이 전혀 부럽지 않은 대역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밤새 저마다의 무용담을 얘기하며 가슴 뿌듯해했습니다. 이듬해 거센 태풍에 지붕이 넘어가고 철골이 무너지는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숲의 극장은 벌써 3년째 관객을 맞고 있습니다.

연희단거리패의 모든 레퍼토리와 신작이 숲의 극장에서 한 번 이상씩은 공연되었고 세대를 아우르는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람을 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난해해한 공연은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디의 엘리트 관객보다도 더 정확하고 솔직하게 공연을 보았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며 배우들과 같이 호흡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숲의 극장에서 남은 공연 사진들에는 꼭 객석과 무대가 한 화면에 들어가 있고 배우와 관객이 같이 있습니다. 관객은 배우를 보고 감동을 느끼고 배우는 관객을 보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매표소 앞에서 이 모두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구나 하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역축제를 제대로 살리는 길

김준혁 | 스튜디오 '메타' (대표)



낡은 개념들을 깨뜨려야

우리가 얼마나 낡은 개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세삼 깨닫게 되는 때가 많다. 칼라TV로 인하여 우리의 색깔에 혁명이 일어났다고들 하나 아직도 우리 나라 거리를 찍은 사진은 외국에 비해 그 색깔의 다양함이 나 조화 등에 있어 뒤쳐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나 법령 등에 있어서 이러한 '낡음'은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공연장에 대한 법령을 본다면, 공연과 상영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일제시대의 법령을 따서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기우고 가리 고 해왔기에 이제는 누더기가 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최소한 이 시대에 걸맞는 공연장법에 대해서는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여유가 없 으면서 공연예술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우리의 눈은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면서도 머리와 몸은 여전히 그 담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 또는 일반 조직의 행정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면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낡은 개념'들이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의 속도는 너무도 미미함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 나쁜 점이 있다면 이러한 '낡은 개념'의 행정은 식민지 시대와 군사독재 시대의 구체적인 방편으로 시작되고 또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것'은 쓸모없다고 생각한 다면 큰 잘못이다.

해묵은 장맛을 어떠한 조미료로도 대신할 수 없듯이 오래 될수록 그 가치 가 빛나는 것은 더욱 많기 때문이

다 오래 되었기에 더욱 쓸모 있는 것과 이제는 낡아서 쓸모 없는 것을 가리는 지혜야말로 현재 우리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무수한 축제들의 낡은 틀

축제가 유행이라도 되는 듯이 많아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 국내 각지역에서 펼쳐지는 400개가 넘는 축제들 중 약 70%는 그 지역의 전통문화와 관련이 깊은 향토성 지역축제이다.

또한 그 대부분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축제가 많아진 듯이 보이는 이유는 지방자치 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축제들의 대외 홍보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등장한 몇몇 축제들이 범지역적, 국제적 성격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지역축제 시대'의 막을 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축제가 범지역화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옛날 그대로 동네잔치 같으면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관광화, 국제화 만을 외치고 있다는 데 있다.

더욱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새로이 출발하는 현대적인 축제나 예술축제마저도 그 틀의 모델을 '낡은 축제'에서 빌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축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들은 한결같이 '관주도형', '동원된 참여', '천편일률' 등의 부정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언 급하고 있다. 이러한 '낡은 개념', '낡은 틀'로부터 우리의 지역 축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전문인력의 활용과 육성을

‘관주도형’이 축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역관청이 주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전문인력의 머리와 손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축제의 기획에 있어서의 가장 큰 손실은 대체적으로 비전문가의 안목이 전문가의 안목을 다른 힘으로 억 누름으로써 전문가의 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축제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지역축제들은 단순 공연이나 전시행사처럼 하나의 무대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한두 시간내에 끝나지도 않는 복합문화행사라 할 수 있는 만큼, 각 행사들간의 유기적 관계의 창출, 장소의 치장과 관리, 또는 이에 참여하는 인력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에 있어 전문인의 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선은 ‘기획의 전문화’에 의해 그 축제가 특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기획인은 ‘축제의 도구’를 찾아내고, 관객의 층을 확실하게 예측하며, 행사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낸다. 또한 기획단계가 전문화됨으로서 축제가 필요로 하는 많은 전문인력들이 제자리를 찾아 많은 부분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최소한 전문적인 시각디자이너나 진행감독 무대감독 등은 대부분의 지역 축제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들이다. ‘시각디자이너’는 홍보물의 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하드웨어의 시각적 처리, 관련상품의 개발, 제작에 이르기까지 축제의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통일 시켜나가고 질적인 면의 저하를 막아준다.

때로는 ‘그래픽 디자인’, ‘환경디자인’, ‘상품디자인’ 등을 구별하여 전문인력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디자인부분의 통합조정 기능을 하는 미술 감독을 별도로 두어야 합리적이다. ‘진행감독’은 각 행사들이 제 시간에 제 위치에서 별탈없이 진행되도록 제반사항들을 관리 감독한다. ‘진행감독’은 각 행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준비물들은 물론이고 이에 관련되는 진행 요원이나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관리, 배치



등을 치밀하게 함으로써 행사 진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한다. 진행감독은 때로 무대 감독, 조명감독, 음향 감독들을 거느려야 할 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 대한 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사진행의 전 반을 책임져야 한다.

흥겨움과 즐거움 그리고 해방감

‘일상성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해방감’은 모든 축제의 본질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자유로움의 만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이지 않은 즐거움과 흥겨움이 축제로부터 쉽게 얻어져야 마땅하다. 그래서 축제는 자신만의 ‘축제적 도구’를 개발하고, 그 도구를 통해 ‘공동체적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많은 우리의 축제는 이러한 ‘흥겨움과 즐거움, 그리고 해방감’을 줄 수 있는 도구 개발에 미진한 상태 이기에 다소 저질적인 방식이나 일상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많은 지역축제들이 노래방의 확대, 길거리 춤판(관광 버스의 연장 분위기), 남대문 시장의 축소판이라는 유니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축제가 줄 수 있는 ‘흥겨움과 즐거움, 그리고 해방감’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지역축제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도시문화복지22호〉

특색있는 지역축제

한옥현 | 광명문화원



영암왕인문화축제

지역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살찌우는 문화적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축제가 무려 480여 개가 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자부는 이미 지역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축제를 자체 해줄 것을 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많은 축제 중 축제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성공한 지역축제로 평가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3개의 최우수 축제를 포함, 문화관광축제 29개를 선정하였다.

청도 소싸움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등은 관광객 유치와 독특한 축제 아이টে를 바탕으로 성공한 지역축제로 평가하고 있다. 청도소싸움축제는 1999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되어 스페인의 투우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도약하고 있다.

농경문화가 정착한 시대에 즉흥적인 놀이로 시작되었지만 씨족단위로 변져 서로의 명예를 걸고 가세 또는 족세 과시의 장으로 이용된 소싸움 축제는 소의 크고 작음에 구애받지 않고 힘과 기술로 한판 승부를 겨루어 힘이 부족한 소가 머리를 돌려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는 단판승부의 경기로 진행되는 소싸움 경기를 비롯하여 한우 로데오 경기 한일소싸움 대회 등의 중심행사와 많은 문화행사와 부대행사를 진행하였다. 올해 행사에만 내외국인 58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127억 여원의 지역생산 파급효과를 나타내었다.

영암왕인문화축제의 경우 4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왕인 문화축제'. 1,600년 전 천자문과 논어를 일본에 전해 고대 일본의 아스카문화를 꽃피우게 한 백제 왕인박사를 기리는 문화 축제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왕인박사 도일 기원굿등의 주제 행사, 천자문 천등행렬등 특별행사, 왕인학문의 길 트레킹 등 체험행사와 전

통음식적,

민속공연 등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꾸며진다.

특히 왕인박사 내외와 학동, 오경박사, 백제왕행령, 성덕태자 사신행렬 등으로 꾸며지는 '왕인 박사 일본가오'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볼거리이며 취타대와 백제문양 만장단, 풍물패 등이 어우러져 흥겨운 호응을 이끌어낸다.

이 외에도 우리 전통 종이를 일본에 보급한 왕인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우리 종이 공예전', 난타와 품바타령을 접목시킨 퓨전품바극, 백제 서민층의 성년식인 '들돌들기', '백제민속놀이 일곱마당' 등의 즐길 거리를 마련하였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우리나라 국보 제121호인 하회탈과 가장 한국적인 탈놀이로 불리는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본고장인 안동시에서 국내외의 전통 탈춤을 한 자리에 모아 벌이는 '탈춤 한마당'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세계 최고의 가면'이라 불리는 하회탈의 자존심을 걸고 열리는 이 페스티벌은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물론이고 국내 여러 유명 탈춤 공연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민속 탈춤도 선보여 다양하면서도 이채로운 축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민속축제로서 차전놀이, 놋다리밟기, 저전논매기, 굿한마당, 달집태우기, 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대회, 궁도대회, 시민한마당잔치, 농악놀이 등이 있으며 예술행사로 도산별시, 탈춤그리기대회, 창작탈 전시대회, 정부인안동장씨 휘호 작품전. 경북도립극단, 판소리한마당, 사물놀이와 부대행사로 세계탈 전시회, 하회선유출불놀이, 장승전시회, 특산물전시회, 탈춤워크숍, 탈공방등 전통문화의 세계화와 외국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통해 안동은 국제적인 탈놀이의 메카로 세계 속의 민속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아 가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축제

“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추고 하는 행사만 150여개에 이르고
소위 축제라는 이름의 시민 행사로는 40여개에 이르는데

5월과 10월에 집중되어 있어

이번 가을은 인근의 문화행사를 찾아다니는 것도 꽤 괜찮을 듯 싶다.

”

임재춘 | 광명문화원

지역축제는 각 지역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 또는 역사성을 살린 행사로 집약될 수 있다. 주제나 성격, 형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퍼포먼스 위주로 프로그램화 된 공연축제, 경연대회 형식의 예술제, 또는 제의적인 성격의 추모제나 민속축제 등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추고 하는 행사만 150여개에 이르고 소위 축제라는 이

름의 시민 행사로는 40여개에 이르는데 25개시와 6개의 군으로 이뤄진 경기도의 행정 구역 현황을 고려할 때 경기도 지역내에서만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수치적으로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지역만의 특성 개발과 운영으로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몇몇 경기도의 지역 축제를 살펴보았다.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의 산채음식축제



빛내농악

이천 세계도자기 엑스포

이천은 청동기시대부터 토기 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예 터로 자리잡은 곳이다. 인근의 광주, 여주지역과 함께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탄생은 그런 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올해 12년째를 맞이한 문화관광부지정 집중육성축제로서 지난해 80여개국에 참가하고 500여만명이 다녀간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잡았다. 본래 지방 색과 문화를 살려 지방 축제의 하나로 시작했던 이 행사는 외국과의 문화교류 등 질적인 발전을 거듭한 끝에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남양주 세계아외공연축제

매년 5월 북한강변을 따라 열리는 국제 규모의 행사다. 자연과 공연예술의 조화가 두드러지는 행사로 자연을 주제로하는 작품들이 연극, 마임 등의 퍼포먼스를 비롯해 심포지움과 같은 학술적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

전곡리 구석기 문화제

5월 연천군의 선사유적지를 배경으로 선사 문화에 대한 본제와 해마다 다른 부제를 가지고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도 역시 “원시체험교실”, “원시인형극”, “원시패션쇼” 등을 통해 참가한 사람들에게 문화 유적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을 선사해온 10년 역사의 전통적인 행사중 하나이다.

죽산 어린이 축제

대다수의 관위주의 축제에서 민간 축제로는 두드러지는 행사이다. 죽산에 있는 연출가 김아라의 연극 캠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 행사는 가족, 생명, 전통, 예술축제라는 목표아래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남사당패의 상징적 존재(우두머리)인 여자 꼭두쇠 바우덕이를 기리는 민속 추모행사로 안성의 문화예술도시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사이다. 남사당 놀이와 바우덕이 제례의 추모 행사와 각종 민속공연, 놀이가 옛 모습의 재현속에서 이뤄지는 바우덕이 축제는 지역의 전통 문화개발과 동시에 문화적인 정착의 성공적인 예로 꼽히는 행사이다.

그 외에, 부천의 판타스틱 영화제와 과천세계마당극제와 같은 국제 규모의 행사를 비롯해 각 지역의 전통적 특성을 살려 문화적으로 시민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행사들이 경기도 각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5월과 10월 집중되어 있어 이번 가을은 인근의 문화행사를 찾아다니는 것도 꽤 괜찮을 듯 싶다.



광명의 지역축제

계승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양철원 | 前오리기념관관장

우리의 최근 역사를 보면 50, 60년대의 전후 혼돈과 70년대의 급격한 경제개발의 여파로 우리 삶의 많은 모습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전형적인 농촌 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하며 수많은 농촌 인구들이 도시와 변두리에 몰려 공장 노동자와 주변인들로 변하여 생존의 방식을 바꾸었다.

이 여파로 80년대 들어 경기도에는 여러 신흥도시들이 생겨났다.

우리 광명시도 안양천 너머 구로 공단에 몰려든 많은 노동자들의 거주지 역할을 하다 81년도에 늘어난 인구를 배경으로 시로 승격되었다.

개척 이후 10년동안은 개발되는 아파트단지와 새로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며 변화의 날들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어느 도시들처럼 급격한 인구 이동과 변화는 전통과 문화 역량 축적의 단절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와중에 90년대들어 시민들의 문화 욕구와 지역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지역 축제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이 축제의 기획자

들은 급격히 확산되는 매스미디어의 오락 프로그램의 정보와 문예 활동에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열린 음악회” 류의 공연과 “숨씨 자랑” 류의 두가지 틀로 축제를 기획하였다.

그 사이 축제의 명칭은 지역을 알려야 하며 지역 연고 전통인물에 대한 홍보를 해야한다는 지역의 당위적 고민속에 옛 인물의 호를 따서 열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광명의 오리, 안산의 성호, 고양의 행주산성체가 대표적인 예이고, 수원의 화홍문화제나 양천의 문화제가 기왕에 것이나 새로이 정조 임금 행차나 철종의 서울 입성을 크게 재현하는 것은 주위 도시에서 영향 받은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정 부분 당대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역 문화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모색에 따른 기획보다는 방어적이고 모방에 가까운 프로그램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시민들의 문화의식 발전의 속도는 무척 빨랐고 이는 다양한 요구와 높아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우를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비슷한 기획 속에서도 비디오 영상전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실패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은 문화는 그것을 둘러싼 조건의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즉, 지역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와 설득을 할 수 있는 주관적인 역량이 모자란 상황에서의 추진은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 수 없게 하는 요소인 것이다.

또한 90년 중반 이후 “오리 이원익”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면서 처음 오리라는 축제 명칭을 붙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의식이 짙었다. 즉, 오리 이원익은 광명시의 대표적인 인물임에는 틀림없으나 그의 역할은 축제의 형태가 아니라 삶의 일상부분에서 배워야 하고 선양해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다 알고 있듯이 고대로부터 축제는 마을에서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위로하거나 또는 힘든 농사 중간에 휴식을 취하며 준비를 하는 시기에 열렸다. 또 한 내용도 축제의식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일체감을 피하거나 일탈을 통한 스트레스의 해소와 카타르시스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하는 축제에는 이런 요소가 적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 시민들은 대상이 되고 일탈과 카타르시스라기보다는 엄격한 통제속에서 그저 보고 가는 것이 현재의 축제이다. 그리고 기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프로든 아마추어든-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축제의 본래 고유 기능인 벗어남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축제가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시는 신흥도시로 급격한 변화속에 생긴 신도시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 창조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일상의 영역속에서 꾸준한 문화 이미지를 제고하고 축제의

시기에는 이를 모아 발산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우리와 규모는 좀 다르지만 부산이 특색있는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상위원회를 만들어 영상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으로 일상의 영역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최근 시에 음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음악도시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 오리문화제 역시 음악이라는 컨셉을 갖고 추진 중임을 알고 있다.

적절한 기획임에는 틀림없으나 일상의 영역속에서 음악이라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축제 기간에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축제의 이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는 변하는 것이고 당대의 산물이다. 90년 대 지역 정체성에 대한 모색에서 붙여진 이름인 오리라는 명칭은 발전적으로 떼어도 된다고 본다.

대신 오리 이원익에 대한 선양과 배움은 다른 영역에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원익의 청백리 정신과 대동법 건의, 양잠 장려등을 따라 시민제안 대회를 열어 신선한 아이디어를 듣는든지 신문고대회를 열어 영국의 어느 공원처럼 자유로운 발언을 하는 문화를 장려한다든지, 이원익이 직접 노동을 했던 정신처럼 공직자들이 함께 노동을 하며 선양하는 등의 행사를 이원익이 태어난 시기에 열어도 좋을 것이다

새로운 축제를 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며 그 지혜는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열린 가슴이 전제되어서 모아질 때 창신(創新)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인생은 70 부터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언제부터인가 '인생은 70부터'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요즘 세간에 노인들에 의해 구전되고 있는 해학적인 노래 가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개화시절의 학도야, 학도야' 곡에 붙여 불려지고 있는 노랫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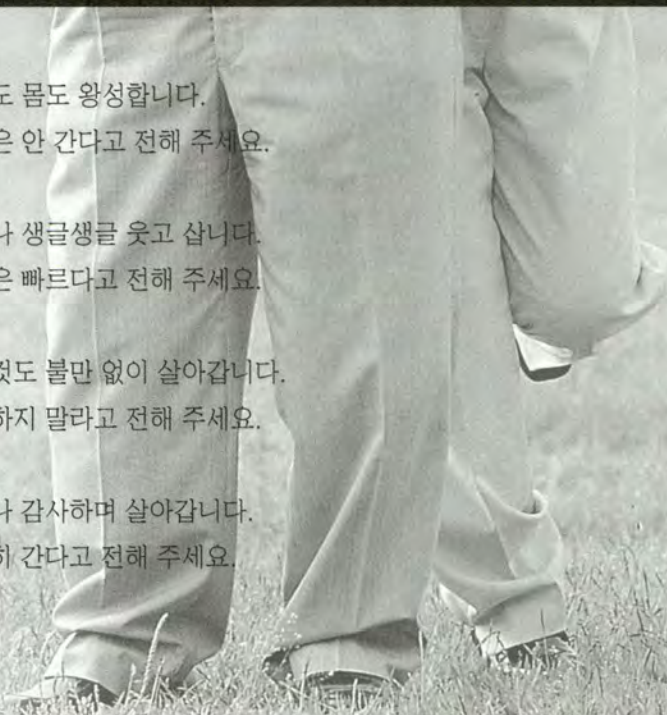
장봉숙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웹진 우리 칼럼니스트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 마음도 몸도 왕성합니다.
칠십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지금은 안 간다고 전해 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 언제나 생글생글 웃고 삽니다.
팔십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아직은 빠르다고 전해 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 아무것도 불만 없이 살아갑니다.
구십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 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일흔 살부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백세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서서히 간다고 전해 주세요.



보래 사람과 소, 개, 원숭이는 조물주로부터 동일한 30년의 수명을 받았다는 우화가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람은 30년의 수명이 짧다고 더 살기를 바랐고, 다른 동물들은 너무 길고 고통스러워 소는 18년, 개는 12년, 원숭이는 10년을 반납하였다. 소와 개, 그리고 원숭이가 반납한 40년을 사람에게 주어 결국 사람만 수명이 70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조물주로부터 받은 30세까지는 영유아기와 청소년기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18년(31~48세)은 부모의 곁을 떠나 성인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소와 같은 생활, 또 12년(49~60)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장년기로 흔히 개 팔자에 비유하여 개 같은 생활, 그리고 10년(61~70)은 동물원에서 ant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원숭이 같은 생활을 하다가 죽는다는 이 우화는 산업혁명 이후 노인의 사회상과 생활을 풍자한 것으로 노화 과정에 수반되는 갖가지 사회생활과 노후 생활을 실감나게 묘사해주고 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불로장생하기를 본능적으로 희구해왔다.

중국의 진시황제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생과 회춘에 대한 열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 연장 꿈은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의 수명이 지난 50년 동안 46세에서 75세로 대폭 연장되었다. 그 뿐인가. 인간의 노화를 멈추기 위한 노력은 게놈 프로젝트와 인공 장기와 신약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서 인간이 추구해온 영원불멸은 몰라도 생명 연장의 꿈은 분명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령 인구의 양적 증대와 노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후의 경제생활, 노인인력의 활용, 여가활동 문제, 의료보호, 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인생은 70부터라지만 산업 사회로 인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상대적으로 무능한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와 고양이만도 못한 '3등 가족'이라는 자학적인 하소연을 할 만큼 자기 가족들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심각하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 문제가 더 이상 가족의 무제로만 국한될 수 없다. 마땅히 국가적 지원 정책에 의한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양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국의 복지 이념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어 현실화되어야 한다. 분명 노인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에 대한 대처가 부적절하다는 문제 인식이 당면한 노인들뿐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과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웹진 우리〉

우리WoORI

Women's Online Resource and Information

어르신들을 위한 전국 이색 행사

정현주 |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하나

5천 고양시민이 함께 한
“호수노인문화축제!!”

이색 행사 하나!

- 축제일 : 11월 16~17일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호수공원
- 내 용 : 새로운 노인문화를 주도하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 5천여명을 한자리에 모아 지난 2000년에 제1회 호수노인문화축제가 시작되었다.
'어르신과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축제는 복지관의 전 직원과 이용노인들이 하나 되어 행사준비부터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노인문화를 알리고 가족 사랑과 어른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펼쳐지는 이러한 노인축제라 그 의미가 크다.

제 5회
‘은빛 새 사랑 축제’

이색 행사 둘!

- 축제일 : 7월
- 장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내 용 : 은빛 새 사랑축제는 홀로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새 사랑을 맺어드리는 행사로 전주시 주최, 안골노인복지회관의 주관으로 이번에 5회 째 열리는 이색적인 행사이다.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쓸쓸히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재혼의 기회를 가지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노인 새 사랑 맺어드리기' 사업은 백발이 성성하지만 마음은 항상 젊게 사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둘

‘내 사랑의 또 다른 날개’

이색 행사 셋!

- 축제일 : 2002년 4월 2일(화)
- 장 소 :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대강당
- 내 용 : 이번 행사는 Socio Drama를(개인의 사회적 부적응 신경증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해낸 즉흥극) 통해 노인정신건강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가족 및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동호회 공연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권장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행사내용으로는 어르신 정신건강검사(노인성 치매, 우울증, 불면증 등)와 노인정신건강강연(대동병원 진료부장 최성환), Socio Drama 공연(노인정신건강문제 관련), 어르신 동호회 공연으로 사물놀이(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 스포츠댄스(대명10동주민자치센터), 채춤(대구시니클럽), 강강술래(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 국선도(대덕노인복지회관) 등 각 기관이 한자리에서 같고 닮은 숨씨를 선보였다.

셋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노인들이 있다. 노인들은 빈곤과 건강 문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여가선용과 오락등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활동으로 전국 이색행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넷

“노인들도 즐길 권리가 있어요”

이색 행사 셋!

- 축제일 : 2001년 9월 30일 ~10월 28일까지
- 장 소 : 서울복지센터, 인사동, 대학교
- 내 용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의 날을 기념해 복지센터와 인사동, 대학교 등에서 10월 28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노인축제를 벌였다. '너희가 우리를 아느냐?'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9월 30일 인사동 개막 축제인 노인 모자 축제를 시작으로, 서예 전, 백일장, 그림전, 댄스대회, 노인장기자랑, 당구탁구대회, 추억의 영화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또한 취업한 노인들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 '우리 이렇게 취업했어요?' 프로그램도 노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실제로 경로잔치가 행사위원의 일회성으로 그쳐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축제로 장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노인 축제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다섯

제1회 멋진 노인 선발대회
“일하는 노년이 아름답다”

이색 행사 셋!

- 축제일 : 2001년 11월 2일
- 장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내 용 : 노인은 더 이상 사회적 부양·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흐름을 주도하는 능동적 계층임을 선포합니다. 85세를 넘기고도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멋진 노인'을 뽑는 '제1회 멋진 노인 선발대회'란 이색행사가 2일 서울대 의대에서 열렸다.

여섯

『제2회 전북 실버(silver) 정보검색 대회』

이색 행사 셋!

- 축제일 : 2002년 6월 21일 금요일
- 장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내 용 : 전북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제2회 전북 실버(silver) 정보검색 대회』가 실시되었다. 이번 대회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참가하여 참가신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치뤄졌으며, 노인 분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이용능력을 한층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타 지역 이색 노인여가 문화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광명의 노인 여가 문화는 어떨까?... 실제로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광명시도 노인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전문인력 채용 및 이색 프로그램 개발로 평생학습도시로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를 해본다.

영화 <죽어도 좋아>를 봐야 하는 노인들의 성(性)

임재춘 | 광명문화원

이번처럼 “아직”이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되내었던 적도 없을 것이다. 아직은 내가,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이 이를 까발릴 수 있을 정도로 열려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바로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해하기 힘든 노년의 의미를 단지 성이라는 단어를 들이대었다고 해서 재단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잠시 보류를 했다. 얼마전 제한상영등급으로 결론이 났지만 예술의 본질과 기준을 잃고 대중들을 우매의 대상으로 보는 영상물 등급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실질적인 자율등급에의 요구라는 진보적 문제가 존재한다. 영화와 문화관련 단체·예술인들은 결과적으로 국가 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예술인 선언문을 준비하는 등 “죽어도 좋아”는 당분간 문화 정치적 사안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던 영화 죽어도 좋아(감독 박진표)가 개봉을 앞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판정과정에서 상영불가, 보류, 심사위원 사태 등의 진통을 겪으며 아직 개봉을 하지 않고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제 주인공들의 출연한 이 영화의 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예술표현의 태도에서부터 노인의 성이라는 황혼 문화에까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영화 줄거리는 그렇다.

남자와 여자가 있다. 두 사람 모두 나이 일흔을 넘긴 노인네다.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을 한 두 사람은 죽음보다 외롭게 고독과 친구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한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운명처럼 만났다. 한시가 안타까운 두 사람은 마음가는대로 사랑을 식히지 않는다. 섹스도 가능하다. 두 사람에게 섹스는 이미 오래전에 떨쳐버린 그 무엇이었다.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참고)

마치 아줌마처럼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림, 아줌마에 이어 제4의 성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특히 우리 사회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 분위기를 이끌고 그 특성과 문화가 제법 명확한 아줌마라는 권력에 비해 노인은 훨씬 소극적이고 사회의 주도적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지금, 서예, 봉사 등 적극적인 시간을 지루하지 않고 가능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노인 문화의 물이해를 통해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사적, 공적 영역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여성문제만큼이나 억압되

어있던 황혼의 성 문제는 어쩌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유교적 전통에 의한 보수성으로 어떻게 도덕적으로 유린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고 보여 진다.

생물학적으로 해외 노인 의학의 전문가라고 하는 벨가니의 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 대부분이 몸은 늙어도 성욕은 늙지 않는다고 설문에 답했다고 하고 75세 이상의 남자들 중 80%는 비록 신체적 능력이 안 되더라도 추억과 상상력으로 성생활을 즐긴다는 통계를 얻었다고 한다. 역사적인 인물

인 빅토르 위고는 죽기 며칠 전까지 자신이 정복한 여자를 일기에 기록했고, 괴테는 72세때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다는 것이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는 마치 섹스만이 주제의 전부인 것 같다. 단지 성기노출이라서 안되고 불륜이라 안되고.. 예전에 정태춘 ·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노래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는 얘기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미성숙한 한국의 성문화가 아쉽다.

❖ “죽어도 좋아” 그 고귀한 욕망

저명한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의 할머니는 성적으로 지극히 개방적이다. 드러커가 자서전에서 회고한 바에 따르면 칠순 조모는 외출하려는 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깨끗한 속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적으로 분방한 할머니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가 상상하는 할머니는 자연과도 같은 존재로서 항상 인내하고 희생하며 포용할 뿐이다. 우리는 영화 <집으로...>의 할머니처럼 뜨거운 욕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인들의 섹스를 다룬 영화 <죽어도 좋아>는 충격적인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

노인들의 실제 성생활은 어떨까. 미국에서 이뤄진 여러 연구결과들을 모아 놓은 사이트 ‘노년의 성생활 (Seniorsex.org)’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듯싶다. 60대 노인 중 남성의 73%와 여성의 63%가 주1회 이상 성행위를 한다고 한다. 70세 이상의 노인들도 왕성한 편이어서 남성은 58%, 여성은 50% 이상이 주1회 이상 쾌감을

즐긴다. 통계치를 보면 여성 노인의 성욕이 약하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이것은 착각이다. 평균 수명이 긴 여성은 남성보다 오랜 기간 독신으로 지내야 하며 그 결과 성행위의 기회가 적을 뿐이다.

‘노년의 성생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레즈비언 할머니들과 게이 할아버지들도 나이에 굴하지 않고 파트너를 구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한다. ‘노년의 성생활’은 연령주의(ageism)의 극복을 주창한다. 사람을 나이에 따라 차별하는 태도, 특히 노인을 차별하는 버릇을 반성하자는 것이다. 성적 문제로 국한한다면 20대 청춘들이 스킨십에 탐닉하듯 노인들도 역시 같은 욕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 노인들의 성생활은 덜 왕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연령주의가 너무 완강하기 때문이다. 조르바의 할머니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욕신과 욕망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곱게 늙는 비법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영재 문화웹진 컬터전 편집장(www.cultizen.co.kr)

(위 글은 굿데이뉴스 기사로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광명의 활동하는 어르신 YMCA 좋은 방송을 위한 노인의 모임

홍보부장 박종애 님

임재춘 | 광명문화원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모임을 하시게 된건가요?

당시 텔레비전에서 인기있는 노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마치 노인들을 희화화 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의견은 몇몇 노인들과 나누다가 공론화가 되었고 YMCA에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100% 자발적인 모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모두 공통된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모니터링하며 다시 토론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노인관련된 방송을 보고 모니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모여 토론하고 그 안에서 얻어진 내용을 방송국에 직접 건의합니다. 실제로 방송중인 노인 프로그램들이 내용면에서 시정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구요.

지금의 나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여자가 50세 전에는 정말 가정일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면에서 여자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50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이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놀면 뭐하나, 죽으면 썩게 될 몸인데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던 봉사 활동도 광명에서 조직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국제키비탄이라는 장애인 아동 봉사동아리를 광명에도 정착시켜 뜻이 같은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그런 아동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그 외에 문화활동은 안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서예, 등산을 합니다.

앞으로 바램이 있으시다면?

나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집안에 머무르지 말고 같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국제키비탄 모임도 좀더 활성화 되길 바라구요.

앞으로 광명 곳곳에서 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대한노인회광명시지부 박기범 지회장

▶“안녕하세요.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 주셔서 더 감사하죠. 특별히 유명하지도 않은 저를 찾아주셔서 더 감사할 따름이죠.”

▶“이곳 대한노인회에서는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있는 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이 거리교통봉사대는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50여명의 봉사대가 각 학교 건널목에 배치되어 아이들에 등굣길을 지켜주고 있지요. 또 저녁7시부터 11시까지 청소년선도 위원들이 소하동,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으로 40여명이 배치되어 아이들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수원경찰청에 위임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활동할 수 없는 실정이지요. 또 문화재 환경 정리에 힘쓰고 있어요. 광명시에는 유적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유적지를 돌며 주변에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저의 봉

사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지요.

또 부속으로 광명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교양학부와 노인들에 컴퓨터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장을 맡으시면서 가장 힘드시거나 보람된 일이 있으셨다면..”

▶“우선 힘든 점이라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역과 기관에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물론 이곳에서 교육받은 노년들이 전과교육을 통해 각 지역으로 돌아가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노년들을 일깨우고 교육을 통해 자기개발에 더욱 힘쓰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전에는 가족중심의 사회였지만 지금은 핵가족 중심에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독거노인이 늘고 그로인해 노인들은 고독과 무료함을 갖게 되지요. 젊은 시절 왕성히 활동했던 사람도 노년이 되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노년의 활동을 적극 찬성합니다. 많은 활동들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

해 자기개발을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지회장님에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지요. 우리나라에 복지예산은 1%도 되질 않아요. 수명 연장으로 노인은 늘어가고 그에 비해 복지예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요. 좀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런 노인문제에 대비해 예산을 늘리고 많은 방안들을 생각해 내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노인 문제에 대해 등한시 한다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회장님께서 특별히 여가 활동으로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특별히 여가로 즐기는 것이 있다면 등산입니다. 등산은 20대부터 즐겼던 운동인데 오랫동안 즐겨왔던 거라 안다녀 본 산이 없지요. 물론 등반을 한 건 아니었지만 히말라야, 알프스 등 세계의 여러 산들을 가봤습니다. 이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꾸준히 하려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좀더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청소년축제 ‘Be the Cool’

이은경 |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Be the Cool축제의 모습

어느덧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 첫돌을 맞이하였다.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문구가 문득 떠오르는 이유는...?

아직 끝이 보이기에는 이르지만 청소년들이 한해 두해 커가고 마음이 조금씩 넓어져가는 것처럼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도 조금씩 성장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청소년들을 이끌고 스스로 청소년들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의 일꾼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조연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은 2001년 6월 30일, 비가 내리는 6월의 마지막 날 문을 활짝 열었다.

그로부터 1년 남짓 60,000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의 문화시설들을 이용했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담활동, CA 및 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의식조사 사업, 환경지킴이 교육, 인터넷검색대회, 청소년직업특강, 청소년소식지 발행 등)을 운영해 오면서 청소년들의 인성 뿐 만 아니라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어느덧 첫돌을 맞아 2002년 8월 17일 오후 5시,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1주년 기념행사를 상업지구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즐거운 한마당을 펼쳐보았다.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공연이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뜻 깊은 날로 기억되고 있다고 한다.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1주년 기념행사를 조금 엿보면, 이 행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활동 공간이며 복합문화공간인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1주년 행사를 기념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문화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청소년 댄스, 밴드, 코스프레 등의 청소년문화를 즐기는 동아리들의 네트워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

더라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밴드팀의 공연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화려한 댄스팀들의 공연에 이어 잠깐의 즉석 이벤트도 함께 펼쳐진 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몇 가지 기대효과를 노려보았다.

첫째, 새로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참여성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기회 마련하고 둘째,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 문화에 한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며, 셋째, 기성세대들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와 넷째, 동아리간의 네트워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광명시 청소년문화의집 홍보 및 이미지 제고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 행사가 기존의 청소년축제가 보여주었던 것과 다른 측면은 청소년문화기획단이 결성되어 4~5개월에 걸친 회의와 공연 연습을 통해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즐기는 한마당이 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를 뒤로 한 채 1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기 전후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사전 철저한 준비 및 실무자들의 준비가 미흡했으며, 각 팀에 대한 배려와 청소년문화라고 하기엔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부족했다.

또한 청소년문화기획단이 결성되어 진행되어 오면서 자발적, 적극적인 모습이 미흡하여 실무자에 의한 회의 진행 방식이었고 회의 내용이 다소 적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광명시에 댄스와 음악팀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되어 청소년들에게 더없이 즐겁고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며, 보이지 않는 경쟁과 함께 선

의의 경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청소년문화축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축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몇 가지 나아갈 방향이 보인다. 청소년축제는 보여지는 공연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번의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닌 고민하고 생각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축제라고 해서 놓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통해 교육적인 요소를 배워가고 세대간, 기성세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축제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양한 청소년문화를 보여주기에 미흡한 행사였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는 모습에 청소년들의 힘을 느끼며 추후 음악도시 광명을 위한 청소년준비위원회 결성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여지기 위한 일회성의 공연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기획하는 행사는 꾸준히 다음해에도 이어질 것이다. 좀더 나은 모습으로 2003년 청소년문화축제를 만나 볼 수 있도록 청소년과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식구들은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청소년 문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강찬호 | 광명경찰서 정책실장,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들에게 문화가 있는가? 문화가 있다.

청소년 세대가 가지는 문화가 당연히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들어나는 양상을 보면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적어도 문화라는 것이 특정 한 세대, 계층을 놓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향유하는 것이라면 당연히도 그들이 문화가 있다. 그러나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른 세대, 계층과의 소통-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들여다 볼 때 그렇다. 즉 청소년들의 문화는 가려져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대중문화의 한 부류로 청소년문화가 드러나거나, 원조교제 등 사회적 가십으로 드러나는 정도다. 기성 세대의 눈으로 볼 때 당연히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거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할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그들만의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은 어찌 보면 불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한창 공부해야 할 때에 그들만의 문화라니.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청소년들의 문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솔직할지 모른다. 청소년들의 문화는 없고, 입시문화만 있다. 학원문화만 있다. 부적응의 공교육, 학교문화만 있다. 간혹 인기가수에 열광하는 청소년 매니아, 인터넷 게임에 푹 빠져 있는 게임 매니아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청소년 문화'라고 단정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이런 현상은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역은 청소년문화를 바라봄에 있어 많은 함축이 있다.

매스컴을 통해 드러나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제외한다면, 청소년들의 활동 반경은 대부분 지역이다. 집과 학교, 학원. 그들이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현장은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 안에서 청소년들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청소년문화를 보는데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청소년들의 활동 양상, 그리고 그 이면에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의미미한 활동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는 것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가 있고, 그 권리를 가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기준에 적합하게 청소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청소년들의 문화가 보인다. 더욱이 그런 청소년들의 문화를 고양하기 위한 지역의 여러 지원이 있다면, 그것은 더욱 의미를 가진다. 이미 청소년들의 다양한 몸짓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이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다. 청소년들이 직업체험과 다양한 훈련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기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온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다. 청소년들만의 전용공간이다. 이곳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자신들을 표현할 새로운 기획을 하기도 한다. 지역마다 운영에 있어 그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부족한

청소년 문화시설 인프라를 감안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공간임은 분명하다. 이런 공간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는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확장함에 있어 중요하다. 즉 청소년들의 활동을 바라봄에 있어,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놀이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줄 수 있을 때, 청소년들의 문화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그들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장이다. 마당이다. 필요할 때, 원하면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어설프게 어른들을 흉내 내지 않아도 된다. 음습한 뒷골목을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자신들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공간을 가져보지 못한 청소년들이기에, 진정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표현하고, 당당한 주체로서 자신들을 주장함에 있어, 아직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열려지는 청소년들만의 무대에 주인공으로서 갈 수 있도록 애정으로 그들의 몸짓을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이다.

아울러 지역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감에 있어 애정과 관심 외에도 기성세대가 줄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 가령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관에 종사자들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많다. 청소년들이 가진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자원이나 운영의 노하우들을 제공할 수 있다. 자연스레 청소년들이 지역을 배우고 참여한다. 지역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지역에 기성세대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문제는 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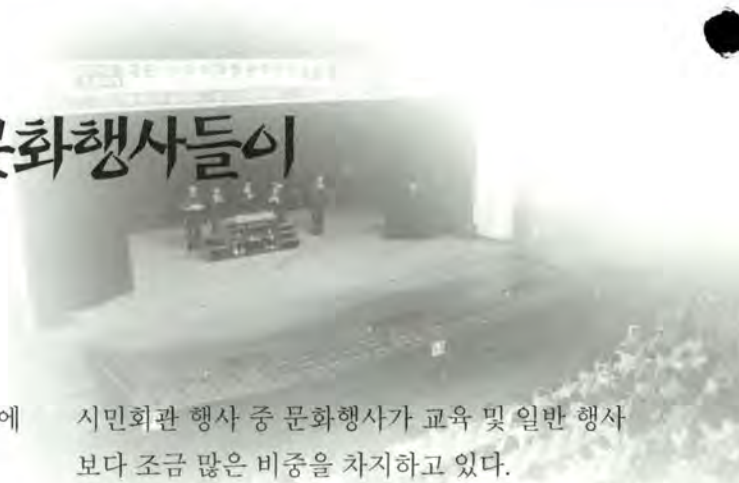
얼마 전(8월17일) 광명문화의집에서 개원1주년 기념행사로 'be the cool!'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댄스, 코스프레 (만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흉내, 모방하여 무대에서 연출)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해 상업지구 문화의 거리에서 마음껏 끼를 발산하였다. 문화의 거리라

고 하지만, 공연이 이루어진 이 곳은 상업지구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어른들의 유흥을 훑쳐보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곳에 공연을 올렸다. 많은 지나는 시민들이 호기심을 안고서 공연을 즐겼다.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체험을 했다. 지역의 모든 곳이 자신들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할 수도 있다. 행사의 주제를 정하고, 섭외를 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행사장소를 정하고... 필요한 부분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엮어 보는 활동. 이런류의 활동은 아마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편적인 예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와 입시의 틀 안에만 머물러 있는 듯 보이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일상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그들 세대의 몸짓을 인정하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움직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만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어 갈 것이라 믿는다. 드러나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목소리, 그들의 끼를 모아내는 관심과 지원을 전체한다면, 마스크의 가식을 넘어서서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눈은 넓어 질 것이다. 시작은 지역이다.



우리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한데 모이는 곳



시민회관은 지방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코자 건립이 되었다.

광명시민회관은 광명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 620석 규모의 대공연장, 200석의 소공연장, 전시실, 시민운동장 보유하고 있다.

시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행사에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문화행사와 일반행사가 열려지고 있다.

광명시민회관이 어떠한 문화행사를 하는지 엿보기로 하자.

시민회관 행사 내용 면에서 광명시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월 시민회관 행사 및 공연을 내용별 분류해 보면 표1과 같다.

분류	계	문화행사	교육 및 일반행사
계	84	50(59.5%)	34(40.5%)
1월	5	3	2
2월	4	3	1
3월	7	3	4
4월	9	6	3
5월	12	8	4
6월	9	7	2
7월	12	6	6
8월	8	5	3
9월	18	9	9

〈표1〉

시민회관 행사 중 문화행사가 교육 및 일반 행사보다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회관의 문화행사를 보면 음악회, 연극, 무용, 영화상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생 경연대회 등도 이루어 지고 있다.

음악회를 보면 '장수가요제', '시민합창제' '시민국악단 공연' '청소년가요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발표회' 등 매년마다 행해지는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오리문화제 개막공연으로 광명문화원에서 진행한 시민합창제의 경우 "공연 내용은 그래도 좋았는데 관객이 적어 아쉬웠다."

"기획은 좋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받쳐주질 못한 것 같다."

등 여러 의견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인 한중수교10주년 기념음악회의 경우 "생각보다 수준도 있고 색다른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의견등 문화행사마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시민회관의 대다수의 문화공연이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속에서 진행되었다.

교육 및 일반행사의 경우 '건강보험 실무자교육', '피아노급수시험', '웅변대회 및 시상식'

등이 있었다.

행사 진행 단체별 분류를 보면 표2와 같다.

지역문화단체의 행사가 33%로 가장 높았고 행사 내용도 문화행사가 주를 이루었다.

지역문화단체 외의 광명시청과 외부단체의 비율도 높았지만 문화행사가 아닌 교육 및 일반행사가 많았다.

시민회관의 행사내용을 엿보면 주로 지역문화단체의 행사 중 정기적인 행사가 많았으며 내용도

매년 차이가 없는 대소동이 하였다.

지방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코자 건립한다는 취지에는 충실히 따라가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다

시민회관 자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보다 대관에 치중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특색이 없는 문화공간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할지는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분류	계	광명시청	지역문화단체	외부단체	영화상영	비 고
계	84	12(14%)	33(39%)	22(26%)	17(21%)	
1월	5		1	1	3	
2월	4		1		3	
3월	7	2	2	1	2	
4월	9		5	2	2	
5월	12	2	7	2	1	
6월	9	1	3	4	1	
7월	12	3	2	5	2	
8월	8	1	6		1	
9월	18	3	6	7	2	

〈표2〉



문화공간으로서의 진정성을 위해

임재춘 | 광명문화원

공공시설로서의 문화공간은 곧 정부의 문화정책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각 시·도마다 시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과 같은 문화공간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문화시설 선진국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정작 그 사람들을 위해 고민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문화정책과 행정정책이 모두 그 고민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말하자면, 공간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유지·보수를 하고, 관내 문화단체 또는 용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렴한 가격에 대관을 해줌으로써 공공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 자체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을 위해서라도 분명 유의미한 일이지만 1년 365일 100% 그렇다는데서 문제의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공공기관에 의한 것이든, 개인에 의한 것이든 문화공간은 결국 국민들 또는 소비자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공산물에 대한 “장사”의 개념을 들이대고자 한다면 어느 분야보다 판매자의 철학을 요구하는 문화 마케팅의 기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과연 유형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무형의 것이라 가치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예술의전당이나 작년에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정동극장과 같은 예를 보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듯 하다. 여전히 재정자립도면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세종문화회관은 차치해 두고 재정자립도 80%가 넘는 예술의전당을 보면 문화공간들의 꿈을 보는 듯 하지만 수준높은 문화 상품과 다양한 내용의 개발, 거기에다 홍보 등 소비자들과의 접점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인적·물리적·재정적 투자 등으로 꾸준히 그들의 이미지를 키워온 것을 돌아보면 우리의 각 지방 문예회관, 시민회관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퍼포먼스 난타의 수익률, 한류의 열풍으로 얻은 각 방송사의 드라마 판권을 예를 들며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발 역설하지는 말자. 공공재로서의 문화상품의 의미는 수익률로 평가할 수 없고 이것이 공공 문화공간들이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토를 단다. 돈은?” 답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다들 알겠지만 공공기관은 세금의 계획과 집행으로 운영된다. 각 지자체마다 문화관련 예산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비현실적인 인건비에 치우쳐있어 전문 인력들의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다 보니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적 편의에 의해 소위 “큰 거 한방”으로 해결한다거나 관객들이 고려되지 않는 지역 행사의 대관 위주가 되기도 한다.



세금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지 관리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는데 더 급급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이다.

지방 공무 집행자들의 문화적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구가 절실하다. 그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감독하는데 있어서 본질이 호도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위치, 기관 입장의 대변이 아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 말이다. 문화적 혜택은 공기와 같은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이다. 결코 공공기관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자본 흐름의 구조로 움직이는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분위기가 일반화되지 않았고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진다. 공공영역에 있어서는 아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정갑영 연구원의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성찰적 이해라는 글을 통해 중앙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본질이 창의력이며 그 창의력의 향상이 문화 활동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발전이 지식기반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명제 또한 잊혀지면 안된다. 무론 이러한 명제가 잊혀졌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보다 현저히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문화산업만 해도 문화산업기본법을 만들

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 년 내 5,000억 조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을 만큼 범 정부차원의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어느 한가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위 글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문화 정책과 집행은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풍요가 국민의 행복이라는 등식은 이제 정신적 여유와 결합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고 지차체 이후 그 역할의 중심에 지방정부가 서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시민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서울과의 문화적 차이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비약적인 표현이지만 행정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에 대한 욕구불만은 여전히 중앙 중심에 대한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또는 무관심으로 그들의 삶의 질은 보장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현재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가장 쉬운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른건 몰라도 우리동네 시민회관이 또는 그 비슷한 공간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들과 더불어 좋은 내용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짐을 조금은 풀어난 것이 아닐까?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길잡이 공간이 아닌 일상의 휴식처로서 약간은 낯고 허술해도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여러 사람들의, 같은 담론의 무의미한 반복이 아닐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은 에디슨의 무심한 호기심과 서툰 자신감이었고, 격정의 시대를 살고 있는 민초들의 소박한 애국심과 이웃에 대한 애정이었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일까?



찾아가는 문화행사 그 의미와 모습

심평섭 | 광명문화의집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관광부 주최로 지난 '90년부터 주로 낙도, 산간벽지, 오지학교, 교도소 등 문화예술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공연·전시·문화강좌·이동문고 등의 문화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취지로 태동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의 의미]

문화의 꽃씨가 필요한 곳은 전국 어디든지... 수요자가 부르는 곳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는 민·관 합동의 전천후형 문화사업으로, 직접 가서 문화갈증을 풀어준다는 점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층 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즐기게되어 서민층의 생산적 문화복지향상에도 기여 하고 있다.



마당극 백두거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모습]

■ 진행 과정

▶초창기

국립기관 중심의 행사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문화관광부소속 국립문화예술기관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전념하여 총 4,422회 사업에 전국의 문화수요자 2,764,00여명이 문화프로그램을 즐겼다.

▶중흥기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출발!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0』출범식이 2000년 3월 3일(금) 14:00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민간단체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부터 활성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0

공연 1,120회, 전시 222회, 강습 269회, 이동문고 94회, 이동문고 1회로 50개 단체가 참여하여 총 1,706회를 운영했다.

-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1

공연 2,029회, 전시 767회, 강습 362회, 이동문고 108회로 76개 단체가 참여하여 총3,266회를 운영

-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2

81개의 민간예술단체를 비롯한 15개의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산하단체 등 총96개 민간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여 의욕적으로 전개 상반기(6월)기준으로 현재 연간추진목표 총 2,500회 중 1,355회를 개최했다.

■ 주요 공연 내용 / 실적

▶ 공연 내용

찾아가는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회, 창극, 궁중음악, 민요, 부채춤, 탈춤, 사물놀이 등 전통 예술공연, 예술원회원들의 예술강연, 뮤지컬, 연극, 음악회, 청소년문화캠프, 시 창작교실 문화강좌 등 기관·단체의 특징적인 문화프로그램이 연중 다채롭게 펼쳐졌고 특별히 농어촌·도서벽지, 철원 민통선마을, 사북 탄광촌, 공단 등 문화소외지역과 소록도병원, 꽃동네, 재활원·양로원, 특수학교 등 사회 복지시설, 소년원, 교도소 등 평소 문화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곳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기관·단체활동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공연 실적 (2002년 기준)

단체별 장르(96개 기관·단체):

종합공연 10 / 강좌·전시 14 / 클래식 20 / 전통 18 / 연극(아동극 포함) 19, 인형극 7 / 무용 3 / 대중음악 2 / 뮤지컬 2 / 이동문고 1

장르별 실적(횟수):

종합공연 149 / 강좌·전시 444 / 클래식 121 / 전통 138 / 연극 295 / 인형극 120 / 무용 23 / 대중음악 3 / 뮤지컬 14 / 이동문고 48

참고 : 문화관광부(www.mct.go.kr)

[광명문화의 집 '찾아가는 문화활동']

광명문화의 집에서는 2000년 11. 1 극단 사다리의

『내 친구플라스틱』을 시작으로 2002년 현재(10월)까지 총 10회의 공연을 진행

특히 2002년 9월에는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백두거인』을 광명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를 접하기 힘든 온신초등학교와 서면 초등학교에서 진행함에 따라 오랜가뭄에 단비와 같이 문화의 향수를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좋은 호응을 얻음

[향후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3'의 기대]

금년(2002년)에는 연간정기활동계획과 별도로, 『2002 한·일 월드컵』의 분위기 조성과 외국인관광객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통공연 예술단체가 부산, 인천 등 5개 월드컵 개최도시를 순회하며 판소리, 살풀이춤, 모듬북합주, 사물놀이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 '찾아가는 문화활동, 월드컵 개최기념 특별공연'도 개최하여 호평을 받았다. 또한 헌신적으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농어민들에게 문화향수기회제공과 정서함양을 위해, 경기도 파주, 강원도 양구 등 7개 전방부대와 경남 남해, 전남 무안 등 3개 농어촌을 방문하는 『농어촌·전방부대 순회음악회』를 개최하여 소외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고하며 국군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군·민 화합의 한마당을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문화 활동 2003』은 더욱더 많은 참여단체와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누리기 힘든 대상을 찾아갈 것이다. 문화의 꽃씨가 필요한 곳은 전국 어디든지... 수요자가 부르는 곳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은 실로 보기 좋은것이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 광명에서도 더욱더 이러한 공연이 활성화되어 저서 문화를 함께 공유하기를 기대해 본다.

광명의 인물 캐리커처전

안윤희 | 인터넷광명뉴스 기자

사람 이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기후절기를 가졌다는 10월의 첫날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선 이채로운 행사가 열려 오는 이의 눈길을 끌었다.

창간 1주년을 맞이하여 광명의 인물들을 선정 캐리커처로 담아내어 전시하는 행사가 열린 것이다. 오후 7시에 테이프 컷팅으로 문을 연 전시는 10여분정도 전시된 캐리커처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정 인물들은 자신의 캐리커처를 보면서 먼저 터져 나오는 감탄과 웃음으로 장내가 술렁거렸다. 참석자들이 캐리커처를 둘러보는 내내 여가저가서 즉석 품평회가 열리고 자신의 캐리커처 옆에서 포즈를 취하여 사진 촬영하는 모습도 연출되었다. 또한 10월 1일은 인터넷 광명뉴스가 창간한지 1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관람 후 창간 1주년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이번 기념식에는 기간 인터넷 광명 뉴스를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고완철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백재현시장, 이재홍시의장의 축사를 들었다.

백재현 시장은 “많은 광명인들이 1년 전 광명에서 인터넷 신문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성공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다. 그러나 인터넷 광명뉴스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광명인들에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후 인터넷 광명뉴스가 지역 언론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부탁했다. 축사 후 피아노 3중주와 가수 이지상의 축하공연으로 무르익은 분위기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다시 한번 캐리커처와 인터넷 광명뉴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몇 년 전 만해도 생소하기 그지없던 인터넷이 우리생활 속에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본다는 것 역시 생소한 일이었다. 1년 전 광명에서 인터넷신문이 창간준비를 할 때 과연 잘 될까하는 의구심을 가진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인터넷 광명뉴스는 여타 다른 언론이 접근하지 않는 시의 회를 현장 중계하는 발굴의 의지로 멀게만 느껴지던 시의 회를 시민들이 상세히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방 자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광명의 구석구석 작은 곳에서 일하는 광명사람들을 만나 광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매일 아침 휴지를 주우면서 이웃을 위해 일하시던 김석곤 할아버지는 인터넷 광명뉴스의 인터뷰를 통해 광명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최옥란씨의 사건을 통해 광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이웃인 장애인들의 비현실적인 정부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역 언론의 새장을 열겠다는 기획 취지에 맞게 지금도 광명 구석구석이 일을 알려내고 있는 인터넷 광명뉴스는 광명의 명산인 도덕산 자연공원 설립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년 전의 우려와는 달리 명실상부하게 광명의 지역 언론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은 인터넷광명뉴스는 이제 나아가 할 길이 분명하다. 지역 언론의 새장을 열겠다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언론의 사명을 되새기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다.



이후원(李厚源)

선조 31년(1588) - 현종 1년(1660) 조선시대의 문인

선조 31년(1588) - 현종 1년(1660)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전주, 자는 사심, 호는 우재, 남향거사로 불린다. 세종의 제5대왕자인 광평대군 여의 7대손, 한의 증손, 인건의 손자이다. 군수옥과 어머니 장수 황씨 사이에서 양구현에서 출생하였으며 문정공 황정욱의 외손이다.

김장생과 성혼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는데 스승 김장생은 일찍이 “그 자태를 보고 가히 헤아리지 못하겠다”하면서 기뻐했다고 한다. 1623년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 3등으로 완남군에 봉해졌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후 태인현감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출전하여 공을 세웠고 인조5년(1627) 왜구를 잡은 공으로 충음사가 되었으며 이후 단양군수 안산군수를 거쳐 한성부 서윤을 지냈다.

인조 13년(1635) 익산군수로 있다가 같은해 10월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했고 이듬해 홍서봉 감상헌 등의 천거로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 얼마 뒤 문학을 거쳐 1636년 12월 장령이 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에 왕을 호종하여 감상헌등과 함께 칩화를 주장하였다. 이 무렵 그는 대장 신경진의 비겁한 죄를 탄핵하고 남한산성에서는 독전어사를 겸임하였다. 이 때 그는 임금이 남한산성을 몰래 떠나 강화로 옮기는 것은 위태로운 계측임을 주장하였고 화의후 세자를 청나라에 인질로 보내는 문제에 반대하였다. 인조 15년(1637) 품계가 통정대부에 오르고 승지를 제수받았으며 호조참의가 된후 외직을 자청하여 광주목사로 나가 선정 베풀었다.

1639년 다시 승지에 제수되었으며 이어 수원부사에 임명되고 병조참지를 거쳐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다. 인조 20년 대사간, 이듬해 가선대부로 한성부우윤에 승진되었다. 이후 강황부유수수를 거쳐 대사간에 재임되었고 1644년 심기원이 난을 도모하자 수장이 되어 이를 제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듬해 호참판에 오른 뒤 대사헌을 지내고 1646년 형조참판을 거쳐 가의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인조25년 다시 대사간이 되고 도승지 병조참판을 역임한 뒤 이듬해 함경도 관찰사로 나가 목민에 힘쓰고 <소학>을 간행하여 백성들의 교화에 힘썼다. 1649년 인조가 별세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형조참판에 이어 도승지 대사헌등을 역임하였다. 효종1년 그는 소를 올려 “김자점은 귀양보내고 유계등은 처벌하지 말며 성균관 유생의 동맹휴학인 권당은 관용하지 않을 수 없고 어진 정승이 정계를 떠날 때는 예우가 있어야 하며 이이 성혼 등 두 신하의 학문과 도덕의 실상을 임금에 알려주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한성부판윤, 형조판서,공조판서,대사헌,이조판서, 예조판서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효종 6년 예조판서로 재임할 때는 추쇄도감의 제조가 되어 전국의 노비를 추쇄하여 강화를 방비케 했으며 또한 장악원에 소장되어 있던 <악학궤범>을 개간하였다. 효종 8년 9월 우의정에 올라 효종을 도와 북벌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송준길을 병조판서, 송시열을 이조판서에 추천하여 임명케 하는 등 인재 등용에도 힘썼다. 이듬해 정월 병으로 사직했으나 임금의 병이 심하여 조정애 나아가 세자의 일을 도왔고 1659년에는 자의 대비의 복상 논의에 대하여 기년제로 할 것을 주장하여 실현시켰다.

노년에 그는 광주 선영에다 집을 짓고 <오재>라는 현판을 달고 살았다. 현종 원년 노환으로 별세하니 향년 73세였다. 숙종 11년(1685) 광주 수곡서원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충종이다. 묘는 광명시 소하동에 있으며 그의 초상화가 전해온다

과천문화원을 찾아서

한옥현 · 임재춘 | 광명문화원

“

어느 날 문득 둘러 본 주변과 하늘이 그 자체로 휴식일 될 때가 있다.
인구 7만의 정부제2청사, 경마장, 놀이공원이 함께 있는 도시 과천은
그러한 자연의 여유를 주는 곳이었다.

”



전국적으로 독립적 문화원사의 건립이 공론화되는 분위기 가운데서 과천문화원도 지표조사 및 예산 책정 등 기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인구는 적으나 재정자립도 97%의 시예산 운영으로 문화원사의 현실화는 그리 멀지 않은 듯 하다. 특히 도시 성격상 전통 문화에 대한 향수가 짙어 문화원이 건립되기 이전부터 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 그 역사성은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과천문화원은 인류사에서부터 현대사를 아우르는 커리큘럼과 대학교수 및 전문위원 수준의 강사진 구축을 통해 타 지역의 기관에 비해 월등하다고 하는 전통 문화 프로그램인 과천문화박물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유적의 이해와 보존, 계승발전이라는 기본 취지로 기획된 이 사업은 과천문화원의 중점사업으로 한달에 한번 강의 위주로 진행되고 연말에 참가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매년 새로운 과목이 연구·개설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 박물관 교실과 함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문화인을 키우려는 과천문화원만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매년 10월경이면 과천시민축제를 통해 아마추어 시민 예술가들이 문화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 수강자나 일반인들에게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자극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계를 시도하고 있어 과천문화원의 전체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사업운영에 프로그램간 네트워크로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영구 사무국장님은, “힘든 것은 없고 다만 전체적으로 문화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지역 주민의 문화의식이 아쉽습니다. 다른 곳도 비슷하겠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 문화원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자부심, 책임감 등으로 일을 하

죠.”

덧붙여 앞으로 지어질 문화원사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몇몇 문화원들이 문화의집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문화원의 역할은 자체원사의 운영을 통해 전통·향토 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이 문화원 활동의 기본이자 중요한 의미라는 사건을 피력하기도 했다.

누가 보더라도 과천문화원의 향토문화에 대한 애착은 대단하다. 향토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지방문화원의 애초 건립 이유를 묵묵히 연구하고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향토사연구소와 민속보존회의 산하단체 운영으로 내용적인 부분을 보강하고 있어 주체들의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열정이 놀라울 뿐이다.

프로그램 규모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관련 종사자들이 힘써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되새기며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많은 과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과천문화원의 애씀이 비록 느리더라도 고된 농사 끝에 얻은 풍성한 곡식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천문화원을 나섰다.



근로복지관

“Showdance - 춤을 보여줘봐~~”

신라회 | 광명문화의집

아침에 일어날 때면 제법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마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지는 계절이다. 나의 이 목은 살들은 좀처럼 빠질 기세가 아니고 굳어져만 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들의 잔소리는 늘어만가고 언니들의 충고어린 조언도 덩달아 커져만 간다. 이에 오기도 생기고 몸 건강도 생각할 겸, 검사항사 자칭 생활의 활력소를 찾아 근로자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차밍디스코 등록을 했다. 막상 등록하고 보니 처음 수업 후 어쩌나 온몸이 쭈시고 아프던지 생활의 활력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몸과 음악은 제각각 놓고, 서먹서먹한 인간관계로 심적 부담감을 준다. 그런데 강좌 회원들과 선생님 사이가 어찌나 화기애애하고 다들 얼굴에 ‘나 쾌활’이라고 써있는지, 어쩔 저리도 즐거워들보이는지, 덩달아 나도 기분이 들뜬다.

강좌 프로그램의 특성상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걸로 인간적 교류가 대부분 끝나는데, 회원들과 선생님 사이가 전부터 알고 지내온 듯, 아님 다들 성격이 무지 활발, 발랄, 쾌활인가?? 알고 보니, 여기 프로그램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프로그램 수강자들까지 포함하여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 서로 교

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상의 만남의 장에 대한 소개를 듣고 들어가보니, 다양한 자료와 사람들의 관심들을 느낀다. 그들만의 공간에서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된 동아리 “쇼우댄스” 그 리더는 물론 차밍디스코 강좌 선생님이신 최윤정 선생님이다.

느은 오후, 퇴근후, 아기가자한 화분을 들고 나는 최윤정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 일단은 리더인 선생님께 춤을 추게된 계기를 물어본다. 원래 음악을 무지 좋아하고, 음악,리듬이 곧 춤(dance)이라고 생각한다는 지론과 함께 선생님의 이력을 듣는다. 처음에는 에어로빅으로 시작해서, 댄스에 대한 멈출 수 없는 매력으로 인해 전향, 힙합, 켄즈, 살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미국으로 유학 생활길에 오르기까지 한 열정을 보면 알 수 있으리라. 근로자 복지관에서는 지난해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고, 1년 전부터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회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음악,춤에 대한 교류를 위해 “쇼우댄스”라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3,4주에 만남을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는 자주 얼굴을 본다고 한다. 지금은 주로 1달에 한번은 회원들간의 소풍, 놀이를 통해 즐거운 시간

을 보내고 2,3달에 한번은 힙합바,살사바를 가서 즐긴다.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내년부터는 함께 즐기는 모임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으로 거듭나기 위해 복지시설등에 무료 공연과 자원 봉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단은 아직은 물색중...

여러 다양한 춤에 대한 회원들간의 선호도는 다르지만 춤 그 자체를 즐긴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모임 사람들이 동아리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듯 하다. “춤이란 리듬을 타는 것이며, 즉 음악과는 땔레야 땔 수 없다. 물론 기술적으로 그 춤을 얼마나 잘 습득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음악에 몸을 맡기고 리듬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춤을 처음 배울 때 리듬은 생각하지 않고 동작만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어색한 동작이 나오기 쉽상이고, 정작 춤 그 자체를 즐길 수가 없다.” 이 말은 동아리 리더인 최윤정 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아리 회원 모두의 생각이 묻어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 20호 광명농악을 지키는 광명농악보존회

한옥현 | 광명문화원



광명농악은 소하동과 학온동에 450여년 전부터 면면히 내려온 민속놀이로 농악대 가락은 철채, 덩덕궁이, 이채가락을 많이 쓰며 다양한 무등놀이가 발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박진감이 넘친다. 농악의 순서는 돌림법구 - 당산벌림 - 오방진 - 가세벌림 - 사통백이 - 좌우치기 - 짝짝이 - 무등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복장은 기본적으로 흰옷차림에 삼색띠를 두르거나 마을에 따라 청조끼를 입는다.

광명농악은 소하리, 칠산동, 학온동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민속놀이로 91년도 발굴하여 95년도 경기민속예술경연대회 대상, 96년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97년 9월31일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20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광명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98년 5월 광명농악보존회(회장 : 유홍무)를 설립하였으며 40여명정도의 정회원과 자문위원이 후원회의 성격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광명농악보존회는 시민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1회 대운동장 주변에서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울리고 있다.

광명농악보존회는 광명시 문화예술행사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영암 왕인문화축제, 경기도 벚꽃축제를 비롯하여 미국 오스틴시, 달라스, 휴스턴 등 도시순회공연을 하여 광명농악을 알리는데 많은 공헌과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순회공연의 경우 한인교포와 미국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전통문화인 광명농악 공연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통해 한국 교민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고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었으며, 미국 시민들도 광명농악단의 경이로운 국악공연과 사물놀이를 등 전통 민속공연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미주 중남부 공연은 언어와 풍습은 다르지만 우리 민족의 혼인 생명의 소리를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경기무형문화제 제20호인 광명농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다.



충현고등학교를 광명농악 전수학교로 지정하여 매년 15-16명의 농악인을 졸업시켜 국악대학교에 진학시

키고 있으며 앞으로 좀더 많은 학생들을 발굴 육성하여 전통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문화예술에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광명농악보존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웅수(41세)씨는 현재 명신대 국악과에 재학중인 만학도로 11세 때부터 마을의 명절 때 어른들의 지신밟기를 따라다니면서 재미를 붙여 자연스럽게 우리 것을 배우는 인생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우리한마당 잔치로 연출하고 또 하나의 축제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광명의 자랑거리인 광명농악이 광명농악보존회의 희망처럼 광명을 빛내고 영구히 계승 발전되기를 바란다.

절기를 통해본 우리 문화

▷ 처서(處暑)

처서는 여름이 지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4절기중 열네번째로 음력으로는 7월의중기, 양력으로는 8월 23일째이다.

옛 사람들은 처서 15일간을 5일씩 3후로 세분하여 1) 매가 새를 잡아 늘어놓고, 2) 천지가 쓸쓸해지기 시작하며, 3) 논벼가 익는다고 하였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밭두렁과 산소의 풀을 깎아 벌초를 한다. 여름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말리는 일도 이 무렵에 하게 되는데 이를 포쇄라 하였다. 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말처럼 파리·모기의 성화도 면하게 된다.

입추·처서가 든 칠월은 논·밭의 ‘지심 맨다’하여 세 벌 김매기를 한다. 피뽕기, 논두렁풀 베기를 하고 참깨를 털고 옥수수를 수확한다. 또 김장용 무·배추 갈기, 논·밭 옷비료 주기가 이뤄진다. 이 무렵 농가에서는 칠월을 ‘어정 칠월이요, 동동 팔월’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칠월은 한가해 어정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팔월은 추수하느라 일손이 바빠 밭을 구르며 지낸다는 말이다. 처서의 제철 과일로는 복숭아가 최고이다.

▷ 백로(白露)

백로는 24절기의 하나로 열다섯번째, 음력으로는 8월 절, 양력으로는 9월 8일째이다.

이시기에는 밤 동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대기 중의 수증기는 엉겨서 이슬이 된다. 흰 이슬이 내리며 가을 분위기가 완성해 진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추석 무렵으로 만곡이 무르익는 시기이다. 옛 사람들은 이 시기를 5일씩 3후로 나뉘서, 1) 기러기가 날아오고, 2) 제비가 돌아가며, 3) 못 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고 하였다.

이 즈음에는 건조하여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나, 간혹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곡식을 넘어뜨리고 해일을 일으켜 피해를 주는 수가 있다.

그러나 백로에 비가 오면 풍년의 징조로서, 속담에 “백로에 비오면 십리 천석을 늘린다.”고 하였다. 백로의 제 철 과실로 포도는 다산을 상징하며 그해 첫 포도를 따면 사당에 먼저 고한 다음 그 집 만며느리가 한 송이를 통째로 먹어야 하는 민속이 있었는데 이는 주렁주렁 포도알로서 다산을 의미하는 주술이었을 것이다. 또 백로에 내린 콩잎의 이슬을 새벽에 손으로 훑어 먹으면 속병이 낫는다는 전래도 있다.



▷추분(秋分)

추분은 24절기의 열여섯번째로 음력으로는 8월 중이며 양력으로는 9월 23일 께이다. 천문학에서는 태양이 북에서 남으로 천구의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곳을 지나는 9월 23일경을 말한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지만, 실제로는 태양이 진 후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빛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진다. 이 시기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며,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옛 사람들은 추분기간을 5일을 1후로 하여 3후로 구분하였는데, 1) 우레 소리가 비로소 그치게 되고, 2) 동면할 벌레가 흙으로 창을 막으며, 3) 땅 위의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농사력에서는 이 시기가 추수기이므로, 백곡이 풍성한 때이다.

이 시절 요리로는 버섯이 가장 맛있는 철이다. 호박고지, 박고지, 호박순, 깻잎, 고구마순도 이맘때 먹을 수 있으며 산채를 말려 묵은 나물로 준비하기도 한다.

또한 추분 즈음이면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목화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리는 등 잡다한 가을걷이 일이 있다.

▷한로(寒露)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는 24절기의 열일곱번째로 음력으로는 9월절, 양력으로는 10월 8일 께이다. 옛 사람들은 한로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3후로 나뉘서, 1) 기러기가 초대를 받은 듯 모여들고, 2) 참새가 줄고 조개가 나돌며, 3) 국화가 노랗게 핀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로, 농촌은 타작이 한창이며 가을 단풍이 짙어지고 제비 등 여름새와 기러기 등 겨울새가 교체되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국화전을 지지고 국화술을 담그는 풍습이 있다. 한로와 상강절의 서민들은 시식으로 추어탕을 즐겼다 한다.

▷상강(霜降)

상강은 24절기의 열여덟번째로 음력으로는 9월 중이며, 양력 10월 23일, 24일 께이다.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들며, 대체로 이 시기는 맑고 상쾌한 날씨가 계속되며 밤에는 기운이 뚝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옛 사람들은 상강을 5일씩 3후로 나누어, 1)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고, 2) 초목이 누렇게 되며, 3) 동면하는 벌레가 모두 땅에 숨는다고 하였다.

봄부터의 바빴던 농사일도 추수의 가을걷이가 마무리되면서 상강때쯤이면 거의 끝이 난다. 다음해 농사에 대비하는 잔손질만이 남았다.

|광|명|5|동|의|풍|물|지|김|이| 김선아

정은경 | 광명문화의집

지역에서만 아니라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근황을 알고 싶습니다.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편인데요 현재 구로지역굿패청노새 풍물지도밧활동, 영등포밝은공동체(대안교육단체)풍물지도, 광명문화의집 풍물지도, 광명여자고등학교 특기적성사물놀이지도, 광명서초등학교 교사풍물동아리지도 등의 활동과 광명국악협회시민국악단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다가 풍물에 매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풍물을 시작한 계기는?

제가 성장한 곳은 충남 부여의 은산 이란 곳인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은산별신제라는 제를 해마다 드렸어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셨던 부모님께서는 제사나 풍물굿을 미신스러운 것으로 여기셔서 멀리서 구경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더하고 싶듯이 몰래 구경 갔다가 그때들은 시끌벅적한 풍물소리에 가슴 떨리게 했던 무언가가 꼭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했었죠.

하지만 기회가 없어 있고 있다가 학교도 졸업하고 회사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할 쯤 여유시간을 내어 있고 있었던 그 신명의 소리를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취미로 시작되었던 것이 고구마줄기 하나를 잡아당겼더니 크고 작은 열매들이 보물처럼 달려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아서 일년에 한번 있는 여름휴가를 풍물굿을 전수하는 전수관이나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배운 것이 7년이 썩여가게 되니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있더군요.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있었던 일은?

2000년 7월에 광명국제교류협회와 일본 오이타현 국제교류협회의 교류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사람들은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국사람들은 일본문화를 배우며 서로 교류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전통악기인 장구를 연주하고 우리민요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참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한국의 한 회원 분이 오시더니 우리민요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일본 분이 우리 판소리나 우리악기에 조예가 깊은 것을 알았을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씩씩했던 것이 기억에 남구요.

풍물을 가르쳤던 분 중에 눈이 안보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웃음으로 신명을 다해 악기를 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나게 보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치든 못 치든 제가 가르친 사람들(꼬마든, 학생이든, 주부든)이 풍물굿의 뿌리와 줄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끌어안아 다양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보람되죠.

“

잘치든 못치든 제가 가르친 사람들 (교마든, 학생이든, 주부든)이
풍물굿의 뿌리와 줄기를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끌어안아
다양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보람되죠.

”

풍물이라는 전통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국악관현악기들이 방중악(房中樂)으로서 주로 실내에서 발전해 온 것과 달리 풍물악기는 대부분 타악기로서 주로 실외에서 뛰면서 발전시켜온 악기들이라 실내에서 쳤을 때 소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놓고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비어있는 공공기관의 장소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통문화를 이어나가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풍물을 배우는 분들에게 바램이 있다면 단기간에 크게 무엇을 이루려는 생각보다 꾸준히 평생친구같이 함께 간다 생각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배운다면 새록새록 재미있는 풍물의 매력들을 발견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풍물굿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좀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풍물굿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풍물굿은 주로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마을마다 마을신을 모신 당산이 있어 정초에 당산제를 지내고 풍물패를 앞세우고 집집마다 액을 쫓고 복을 비는 마당밧이, 또는 지신밧기를 하며 지신밧기가 끝날 즈음 마을 공터에 전 마을 사람들이 모여 모닥불을 피워두고 한바탕 풍물로 신명나게 돌아보는 판굿을 쳐 마을민의 대동성을 함양하는 굿놀이를 풍물굿이라 합니다.

풍물굿을 옛말로로는 ‘농악’이라 하였는데 농악이라는 말이 일제 시대때 일본 학자들이 ‘농사꾼의 음악’이라고 비천히 여겨 만든 말이고 또 음악만을 가리키는 오류가 있다고 하여 풍물굿이란 단어로 일반화되었습니다.

풍물굿은 여럿을 하나로 만들어주어 공동체성을 누리게 하고, 지친 심신을 달래주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것들을 묶어 획일화 되지 않으면서도 일치하게 하고, 약자들이 힘을 모아 단결하게 하는 신명의 힘이 있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이나 포부는?

현재강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풍물굿을 배움으로 더욱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첫째 바램이고, 둘째는 나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갈고 닦아 나가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셋째는 우리 동네(광명5동)에 도시 속의 마을풍물굿을 어른, 아이 모두 모여 신명나는 공동체 굿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굿이 아니라 정기적인 행사로 함께 나누고 배워왔던 우리선조들의 옛정을 이어 나아가 내가 살고 마을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훌륭한 축제 마당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3

New York Story

윤철 | 광명시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I

메트로폴리탄의 규모는 물론 소장품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힌다. 첫 번째는 그 규모에 놀라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유물들을 짧디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수집하고 모아왔을까? 라는 의문부터 생긴다. 나는 주로 약탈(?)쪽에 무게를 많이 두면서 서방을 바라보는 습성이 있는지라 이곳에 있는 유물들을 보면 먼저 화가 난다. 참 많이도 가져왔구나... 많이도 뺐었구나.... 특히 이집트의 거대한 유적과 그리스, 로마시대의 동상들을 보면 이런 생각들 머리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빨리 그곳을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그렇게 유적들을 감상하다가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등의 유물이라도 만나게되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어느 나라를 여행 하던지 박물관을 첫 번째로 보게되는데 이런 유적이 있는 곳은 빨리 지나치는 것이 습관처럼 된 것 같다. 이곳에는 아메리칸윙 이라는 전시실이 있는데 미국의 생활양식과 역사에 대한 전시하고 있으며 미국회화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있다. 19세기의 작품은 2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주로 유럽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초기에는 미국 특유의 내용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대의 흐름을 통해 미국그림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토마스 콜, 듀란, 존 켄사트, 앨버트 비아스터트의 그림이 있으며 프레드릭 처치의 [안데스 산속]은 치밀한 묘사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곳에는 티파니의 유리공예도 전시되어 있으며 패션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패션갤러리가 있는데 세계 각국의 역사,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의상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는데 4만5000천 점이 넘는다고 한다. 악기 전시관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수집한 악기가 4000점이 넘는다고 한다. 사실 나는 그림을 중심으로 관람을 하었는데 그림을 보는데도 하루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제대로 학습을 하면서 관람을 하려면 맘잡고 이틀동안 관람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메트로폴리탄 밖으로 나오니 땅거미가 지고 있는 시간이다. 버스를 타고 다시 친지의 사무실로 향한다. 머리 속이 조금 복잡하기는 했지만 그림 한 점이 다시 떠오른다. 빈센트 반 고흐의 신발(군화)이다. 10호 정도의 그림이지만 그림의 크기가 내 가슴속에 있는 고흐의 크기만큼 커다랗게 다가온다.





NewYork Story

II

초등학교 3학년에 이민을 떠나 지금은 31살 먹은 총각, 메사추세츠주립대, 뉴욕대학원 등에서 제3세계정치학을 전공한 내 조카는 미국내 시민운동가이다. 그는 뉴욕의 청년학교 교장이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일명 나카섹(NAKASEC)이라고 한다. 그는 뉴욕이민자연맹과 함께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70-80년대의 미국 한인사회의 흐름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해 왔으나 90년대 말 이후 미국사회에서의 한인사회의 존재인식과, 소수민족의 문제 등을 각성한 1.5세, 2세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교육과 정치교육, 미국정치에의 참여를 주장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뉴욕청년학교(Young Korean American Services & Education Center)는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프리싱에 있다. 3층양옥인데 조카는 이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미국내 한인 및 소수민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의 말로는 한국에서도 이곳을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청년학교의 교훈은 '바르게 살자, 뿌리를 알자, 더 붙어 살자' 이다. 청년학교는 민족의 뉘이 메마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병들어 가는 미국사회에서 자랑스런 겨레의 아들과 딸, 의연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순수한 청년들의 지혜와 땀, 순박한 동포사회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주로 교육사업과 권익옹호사업 문화활동과 자원봉사활동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 조카의 설명은 이제 조국에서도 미국내 한인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한다. 그는 이어서 2000년 미 대통령선거에서 한국계시민권자가 (34%) 일본계 (63%) 필리핀계 (44%)에 비해 훨씬 낮았고 아시아계 평균보다도 낮았다고 하면서 한인사회의 선거 참여를 높이는 길이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역만리 땅에 와서 스스로의 삶의 문제와 한인사회의 방향을 잡아가기 위한 미국이민 1.5세, 2세들의 노력과 그 속에서 함께 땀흘리며 살아가는 조카가 자랑스럽기만 하다. 조카가 이런 말을 한다. 언젠가 삼촌이 보내주신 80년대의 사진집 '노동자'를 통해 조국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노라고 그리고 그 사진집 속에 있던 노동자 삼촌의 얼굴이 자신을 이렇게 살게하는 힘(?) 중에 하나였다고 고백을 한다. 그의 얼굴에 흥조가 핀다. 나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앞을 가리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선배로서 가슴이 아프다. 25년만에 만난 나의 조카와 그렇게 뉴욕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10 Month

10월 행사

Classic & jazz

"2002 토요상설 국악공연"

2002.03.02~2002.12.28 국립국악원 예약당

박지영 귀국 작곡발표회

2002.10.01~2002.10.01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임미정 피아노 순회 독주회

2002.10.01~2002.10.30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도요기타르렛 내한공연

2002.10.06~2002.10.08 금호아트홀

윤성원 바이올린 독주회

2002.10.06~2002.10.06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꾸러기음악회 '즐거운 가을 축제'

2002.10.12~2002.10.27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데니스 마추예프 피아노 독주회

2002.11.12~2002.11.12 LG아트센터

서퐁파리 오페라

2002.11.13~2002.12.01 알과핵 소극장

오귀스탱 뒤메이 첫 내한 독주회

2002.11.22~2002.11.22 LG아트센터

Concerts

유익종 가을 장기콘서트 '풍경'

2002.09.26~2002.10.13 제일화재 세실극장

3 Colors 3 Divas V

2002.10.03~2002.10.06 폴리미디어 씨어터

조규찬 콘서트 14년의 사랑

2002.10.05~2002.10.06 메사 팝콘홀

홍경민 'Adieu 콘서트 - 一時停'

2002.10.11~2002.10.12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레이자본 狂光 콘서트

2002.10.11~2002.10.12 대학로 SH 클럽

동물원과 함께 가는 '가을 소풍'

2002.10.12~2002.10.12

용문산 국민관광단지 내 야외공연장

강산에 콘서트 '지기에 강영걸이라'

2002.10.15~2002.10.20 제일화재 세실극장

바이브 앵글 콘서트 'WE ALL'

2002.10.19~2002.10.2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조관우 '2002 가을 아리아'

2002.10.20~2002.10.20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

JK 김동욱 First Year

2002.10.25~2002.10.27

교육문화회관대극장(양재동)

조관우 '2002 가을 아리아'

2002.11.03~2002.11.03

BEXCO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칼라 블레이 트리오 내한공연

2002.11.15~2002.11.15 LG아트센터

존 애버크롬비 트리오 내한공연

2002.11.23~2002.11.23 LG아트센터

연극 & 뮤지컬

"Rock Musical 지하철 1호"

2002.03.08~2002.12.31 학전그린소극장

옹피 위에 개피

2002.05.01~2002.12.31 이랑씨어터

넌버벌 댄스퍼포먼스 U.F.O

2002.08.17~2002.11.17 동숭아트센터 대강당

섹슈얼리티 Sexuality 展

2002.09.05~2002.11.24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歌舞樂劇 '춘풍야화'

2002.09.05~2002.12.15 삼청각 일화당

새드 셀카 (Sad Selfcamer)

2002.09.05~2002.10.31 마로니에 소극장

칼리수마' 앵콜공연

2002.09.11~2002.10.27 하이텔 온앤오프 씨어터

리틀드래곤(The Little Dra)

2002.09.11~2002.12.22 라트어린극장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2002.09.13~2002.10.20 유시어터

기차

2002.09.17~2002.10.06 연주소극장

Dancing at Lughnasa

2002.09.20~2002.10.13 상명대 동승캠퍼스 소극장

엘렉트라

2002.09.25~2002.10.02 동숭무대 소극장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2

2002.09.27~2002.10.06 안동시내 일원

레고인간 (Homo Legos)

2002.10.03~2002.10.20 아롱구지극장

리투아니아, 네크로슈의 '오델로'

2002.10.03~2002.10.06 LG아트센터

연극 '거기'

2002.10.03~2002.11.03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창작 MUSICAL 천사 KIO

2002.10.03~2002.11.03 강강술래 소극장

먼데이 p.m. 5:00

2002.10.03~2002.10.20 이리랑 소극장

'표현' 연장공연

2002.10.05~2002.12.01 한얼소극장

번역극 '오늘 또 .. 웃는 날'

2002.10.05~2002.11.03 극장 동숭무대

아카펠라 뮤지컬 hey girl !

2002.10.08~2002.11.05 바탕골소극장

연극 '바나 아저씨'

2002.10.09~2002.10.15 연강홀

햄릿 프로젝트

2002.10.10~2002.10.30 정동극장

Fascinacion de Tango

2002.10.11~2002.10.12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02 예술극장 기획공연 '세자매'

2002.10.12~2002.10.30

문예진흥원 학전블루 소극장

등신과 머저리

2002.10.16~2002.11.17 대학로극장

'지옥' 연극과 한국

2002.11.01~2002.11.07 LG아트센터

독일 탈리아 극단, '산곡' 3부작-

2002.11.01~2002.11.07 LG아트센터

2002 예술극장 기획공연 '수업'

2002.11.02~2002.11.10

문예진흥원 학전블루 소극장

전 시

한국미술명품전(韓國美術名品展)

2002.04.12~2002.12.31 호암미술관

노벨상 100주년 기념전

2002.08.02~2002.11.03 로댕갤러리

이갑철 사진전

2002.08.31~2002.10.09 한미 갤러리

서울의 가을 채을 미디어 아트의 향기

2002.09.26~2002.11.24 서울시립미술관

무 용

탄생 90년, 최승희 국제 무용 축제

2002.09.27~2002.10.01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GISELLE 지젤

2002.10.04~2002.10.05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김영하무대댄스 정기공연 '달아'

2002.10.06~2002.10.0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901,902 (Korean Air)

2002.10.10~2002.10.11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윤성주의 춤풍경

2002.10.18~2002.10.18 국립국악원 예약당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2002.10.23~2002.10.26 리틀엔젤스예술회관

윤미리무용단 '물빛그늘'

2002.11.02~2002.11.03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보리스 에이프만 발레단 내한공연

2002.12.03~2002.12.08 LG아트센터

cinema

개봉영화

YMCA야구단

조선 백성, 친일과 암살 소식보다
YMCA야구단의 승전보에 더욱 기뻐하다.
조선 최초 최강 'YMCA야구단' 이야기
글 공부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는 선비 호창은
젊은 시절의 유일한 꿈이었던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삶의 목표를 잃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호창의 형은 시대적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의병활동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고, 그의 아버지는 개화 세력에
밀려 관직을 그만두고 서당을 운영한다.
어느 날, YMCA 회관에서 야구를 하는 신여성
정림과 선교사들의 모습을 본 호창은 야구에 대한
호기심과 정림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다.
호창의 아버지는 호창에게 서당을 물려 받길
권유하지만 호창은 정림에 대한 감정을 키워가며,
야구라는 신문물의 매력에 빠져든다.



광복절특사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기 위해 열심히 교도 생활을 하는
모범수(?) '재필' (설경구) 조금만 참으면 사랑하는 애
인 '경순'과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고무신은 군대에서
만 거꾸로 신는게 아니란 걸몰랐던 탓일까? 어느 날 먼
회 온 애인으로부터 '결혼한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는데...

해안선

평온해 보이는 동해안의 바닷가. "경고! 밤 7시 이후 이
곳을 접근하는 자는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될 수도 있
습니다."라는 경고판이 서 있다. 어느 날 밤 군사경계지
역 안에서 술이 취한 채 위험한 정사를 벌이던 두 남녀
(영길과 미영)가 강상병의 야시경에 잡힌다. 푸르스름
한 남자의 등짝을 본 강상병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 총을
쏘아대고, 남자의 몸은 탄발과 수류탄에 찢겨 흩어진다.



시민회관

무료영화 “캣츠 앤 독스” 상영

일시 및 장소: 2002. 10. 9.(토) 오후 2시 대공연장



광명시평생학습원 문의: 02)2619-6148

1. 성인학습 상담자원봉사자 교육

- 교육일정: 2002. 10.10 ~ 11.21 매주 목요일 14:00 ~ 16:00
- 교육대상: 성인학습 상담자원봉사자 및 일반인
- 모집기간: 2002. 10.1(화) ~ 10.9(수)
- 모집인원: 20명

2. 엄마와 함께하는 연극놀이

- 교육일정: 2002. 11.6 ~ 12.13 매주 수·금 14:00 ~ 16:00
- 교육대상: 유아(5~6세)와 보호자
- 수 강 료: 60,000원

3. 가르치는 이들을 위한 교양강좌 ‘광명아카데미’

- 교육내용: 한시산책
- 교육일정: 2002. 10.15 ~ 12.17 매주 화 19:30 ~ 21:30
- 교육대상: 교사/학부모/학원강사/단체실무자/성직자/공무원 등
- 교육강사: 김명호(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삼륜서적 대표)

after reading

상도를 읽고나서

상도를 읽고나서

정현주(청소년문화의집 간사)

2백여 년 전에 실재했던 의주 상인 임상옥. 우리나라가 낳은 최대의 무역왕이자 거상이었던 임상옥. 죽기 직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라는 유언을 전해주기도 했던 그의 삶을 주 배경으로 홍경래, 김정희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이 올바른 것인가를 선형적으로 드러낸 최인호의 장편소설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것은 임상옥이라는 그 시대의 무역왕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참 맛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을 임상옥이라는 인물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길 원한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오래가지는 않는다.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찾아오고 불행이 있으면 행복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처럼..

또다시 생각한다. 우리 삶의 깨달음의 경지는 어디까지일까?....

나는 임상옥이라는 인물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는 나에게 있어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며 평안을 찾는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싶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왕인 임상옥이라는 인물과 역사를 배웠고, 인생을 배웠으며,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 또한 배웠다.



Poetry

낙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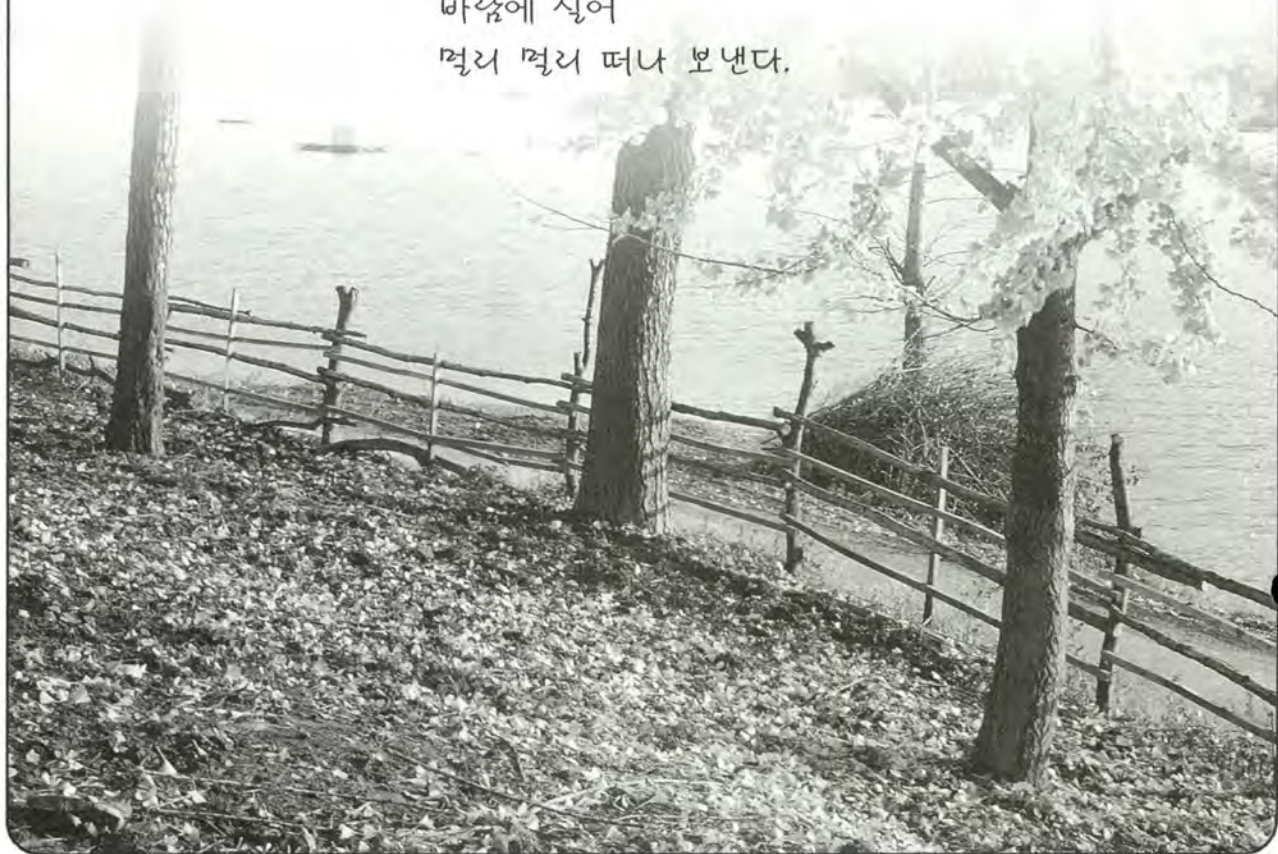
낙엽

광명서초 6/유희숙

떨어지는 낙엽하나에
추억을 담고

떨어지는 낙엽하나에
행복을 담아

바람에 실어
멀리 멀리 떠나 보낸다.



나의 마음 알아 줄 이는..

광명북중 3학년 황보 솔

하늘에서 슬피우는
처량한 별빛소리

나의 맘을 실어
하늘로 보내노니

푸르른 저 하늘이
나의 깊은 마음을 알고
별을 달래주는구나

이 낙목한천(落木寒天) 다 보내고
하늘이 별을 달래는
우리네 청소년 시절

나의 마음 알아 줄 이는
하늘의 하늘과 별들뿐인가?



소박한 밥상(디자인하우스)

아름다운 자연주의자, 스코트 니어링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실천한 헬렌 니어링이 쓴 반요리책. 탐식으로 얼룩진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한 줄기 자성의 바람을 일으키는 요리 철학 에세이. 먹을 거리와 먹는 행위에 대해 삶에 대한 근원적 미각을 일깨워 주는 헬렌 니어링의 독자적인 관점과 철학을 설명한다.

<1부>

소박한 사람들을 위한 소박한 음식

제1장 내가 요리책을 쓰게 된 사연

제2장 요리라는 일, 꼭 수고스러워야만 할까?

제3장 익힐 것인가, 익히지 않을 것인가 : 생식(生食) 대 화식(火食)

제4장 죽일 것인가 죽이지 않을 것인가 : 육식 대 채식

제5장 복잡한가 간단한가 : 가공 식품 대 신선한 음식

<2부>

소박한 음식 만들기

제6장 조리법에 대한 일반 사실

제7장 아침 식사(breakfast)로 금식을 깬다(break fast)?

제8장 소박하고 든든한 수프

제9장 자연이 차려 준 식탁, 샐러드

제10장 활력을 주는 야채

제11장 허브와 양념

제12장 남은 재료로 만드는 캐서롤

제13장 빵은 무거운 음식이다

제14장 과일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

제15장 생수와 그 밖의 음료

제16장 먹을거리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법



잘먹고 잘사는 법(김영사)

‘생명의 밥상’ 열풍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잘먹고 잘사는 법’을 만든 박정훈 피디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밝히지 못한 정보를 책으로 담음.

영양과잉과 탐욕, 편리함과 혀의 미각만 충족시키는 음식문화, 육식 중심의 식생활 등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 가족을 상대로 “생명의 밥상”을 실험한 이야기,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살리는 식사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먹는 행위에 삶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10월의 문화인물

보한재 신숙주(保閑齋 申叔舟)

본관 고령(高靈). 자 범옹(泛翁), 호 보한재(保閑齋)·희현당(希賢堂). 시호 문충(文忠). 1439년(세종 21)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 전농시 직장(典農寺直長)·집현전(集賢殿) 부수찬을 역임, 1443년 통신사 변효문(卞孝文)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훈민정음 창제에 공을 세웠으며 1447년(세종 29)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여 응교(應敎)에 특진하고 부제학 등을 거쳐, 1452년(문종 2)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명나라에 갈 때 서장관으로 수행하고 이듬해 부승지로 계유정난(癸酉靖難)에 참여, 정난공신 2등이 되었다.

1454년(단종 2) 도승지에 오르고 세조가 즉위하자 그를 적극 보좌하여 좌익공신(佐翼功臣) 1등에 예문관 대제학이 되어 고령군(高靈君)에 봉해졌고, 이 해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병조판서·우찬성·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우의정에 올랐고 1459년 좌의정에 승진, 1460년 강원 함길도 도체찰사(江原咸吉道都體察使)로서 모려위(毛憐衛)의 야인(野人)을 정벌, 1462년(세조 8) 영의정이 되었다. 예종 즉위 후 원상(院相)이 되었고, 이 해 남이(南怡)를 숙청한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1등이 되었으며 1471년(성종 2) 성종을 잘 보좌하여 다시 좌리공신(佐理功臣) 1등에 책록, 영의정에 재임되었다.

뛰어난 학식과 문재(文才)로서 6대 왕을 섬겼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동국정운(東國正韻)》《국조보감(國朝寶鑑)》《세조실록(世祖實錄)》《영모록(永慕錄)》 등을 찬수(撰修)했다. 세종 때는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학자였으나 수양대군의 왕위찬탈(王位篡奪)에 가담한 점에서 후세에 비난을 받았다. 성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보한재집(保閑齋集)》《북정록(北征錄)》《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사성통고(四聲通攷)》 등이 있다.



11월의 문화인물

김승호(金勝鎬)

본명 해수(海壽). 강원 철원 출생. 3대독자로 태어나 보성고보(普成高普)를 졸업하였다. 동양극장·신협(新協) 등에서 25년 동안 연극생활을 하였고, 영화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독특한 인간미를 지닌 연기자로 1956년 문교부 주최 우수영화 주연상을 수상하였고 1957년 제1회 부일영화상(釜日映畫賞) 남우주연상, 1958년 제1회 영화평론가협회상 남우주연상, 국제영화 남우주연상, 1959년 서울특별시문화상, 제7·8회 아시아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였으며, 제2회 영화세계 남우주연상, 1967년 청룡영화상을 수상하였다.

1946년 영화《자유만세》로 데뷔, 《시집가는 날》(1956), 《인생차암》(1958), 《육체의 길》(1959), 《로맨스 빠빠》(1960), 《굴비》(1963), 《돌무지》(1967) 등 3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으며 연극에도 참여하였다.

✧ 전철역내로 찾아 간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8월 31일(토) 오후 6시 철산동 문화의 거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립합창단(지휘자 유태왕)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가 7호선 철산역 구내로 장소를 옮겨 열렸다.

이정식밴드 '재즈퀵'의 수준 높은 연주와 청소년 댄스그룹인 '소울리브'에 이어 오!상제리제, 신아리랑, 후니쿨리 후니쿨라 등의 곡들을 들려주어 퇴근길의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느낌을 선사했다.

✧ 2002 찾아가는 문화행사 <백두거인>공연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광명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2002 찾아가는 문화행사 마당극 '백두거인'이 9월24일 오전 11시에 온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직접 관객들에게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여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의 관객들을 찾아간다.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공연한 가족마당극 <백두거인>은 옛날 해도 둘, 달도 둘이던 시절에 착한 백두거인이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고 백두산이 되었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한다.

전통적인 마당극이라 야채와 대바구니를 이용한 탈 같은 소품이나 의상들이 우리전통과 자연을 담아낸 것들이라 많아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젖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 제12회 구름산예술제 개막

올해로 12회째 열리는 구름산 예술제가 10월 5일(토) 오후 5시 예총광명지부의 주최로 시민회관 분수대 마당에서 열렸다. 박경림, 김지선씨 등의 연예인을 초청,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무대였으나 비로 인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 두드락으로 흥겨움을 더한 제12회 구름산국악제

10월 7일 저녁 시민회관에서 구름산국악제의 행사로 두드락의 공연이 열렸다. 이번 국악제는 초감각 비트 퍼포먼스 두드락 초청공연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흠뻑 받았다. 두드락은 리듬& 댄스파노라마, 푸너리, 가위손 등 총 8개의 무대를 연출했다. 가위손 소재로 한 가위손 공연에서는 소품으로 쓰인 엇을 관객들에게 던져 관객들의 더 큰 환호를 받았다.

<인터넷광명뉴스(www.egmnews.com)>

| 문화원 임원 및 가족 소개 |

문화원 임원

원 장	정원조 682-3456	광명2동 50-2 예담 한의원 원장
부원장	유홍무 2615-9982	광명4동 158-235 새롬방송 회장
부원장	안수남 2615-0077	철산2동 성리빌딩 402호 안수남 세무사사무소
부원장	곽향숙 689-9944	신3동 241-1 사회체육센터 외대어학원 원장
감 사	장병환 2618-5678	철산2동 463-18 경기매일 사장
감 사	윤 철 2616-2392	철산3동 222-1 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이 사	김경표 689-8689	철산3동222-1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前의장
이 사	박천범 016-755-8553	구로구 도림동 두산베어스타워 퍼스트창업연구소 소장
이 사	이기철 897-0555	소하동 1268 이화프라자 (주) 이선 대표
이 사	이현정 2611-1023	철산동 220-1 영우프라자빌딩 법무법인 광명, 대표변호사
이 사	안성근 2616-1512	광명4동 43-48 금호주택건설 대표
이 사	민완기 688-2001	철산동 219-1 에이스텔 810호 (주)하남물산 대표
이 사	조상욱 2616-6466	철산동 519-49 포세이돈하우스 (주)포세이돈하우스 대표
이 사	김미정 682-2277	철산3동 245-5호 한영빌딩3층 도쿄어학원 원장
이 사	김양주 895-2701	하안동 53-1 골든힐빌딩603호 (주)두레식품 대표
이 사	김갑렬 807-4254	소하동 210번지 정우상사 대표
이 사	이현정 2611-1023	철산동 220-1 영우프라자빌딩 법무법인 광명, 대표변호사
이 사	김광식 2060-7200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49-1호 (주)케이알씨넷 상무
이 사	박준철 784-459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 B/D 10층 (주)아카데미넷



문화원 가족

문화원 사무국

철산3동 222-1
2618-5800
관리과장 한옥현
간사 정현혜

문화교육연구소

철산3동 222-1
2616-2392
소장 윤철
부소장 이종락
기획팀장 임재춘

문화의집

광명5동 170번지
680-6156
팀장 정은경
간사 신란희
간사 심평섭

청소년 문화의 집

광명5동 273번지
680-6163
관장 윤철
팀장 이은경
간사 정현주

| 광명문화원 및 광명문화원 회원소개 |

광명문화원은 우리 생활속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지역주민의 열린 문화마당
'광명문화원'으로 오십시오.

"본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1992년 4월 개원한 문화단체로 전통문화계승·보존과 지역 문화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광명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 지역문화행사 개최
5월 오리문화제/10월 어린이문화장터 등
- 향토사의 조사 및 새로운 문화의 발굴
향토사연구소/문화의집/청소년문화의집
- 지역전통문화의 보존 및 선양
오리이원의 기념관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언론활동
광명문화저널/광명어린이신문 발행
-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사회교육활동
어린이기자단(광명어린이신문)/어린이영어연극단
어린이합창단(노래친구들)/남성중창단
청소년만화창작단(청개구리)/청소년연극단(울터)
청소년영상단(필름참고)/여성회 주부노래교실
주부영상단(해오름)/주부연극단(어울림)

광명문화원 회원의 특별한 혜택

1. 광명문화저널 등 각종 간행물 우송
2. 문화의집 강좌 수강료 10% 할인
3. 오리이원의기념관 프로그램 초청
4. 향토유적답사 등 기행프로그램 우선 초대
5. 여름·겨울 캠프 참가비 20% 할인
6. 어린이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10% 할인
7. 문화원 보유자료 및 서적열람 및 대출
8. 취미동아리 결성시 공간 등 편의제공
9. 오리문화제 등 각종행사 자원봉사 등 우선 참여
10. 문화원 회원증 발급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 신청방법 : 전화접수 후 계좌로 입금
(내방,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연회비 : 30,000원
입 금 : 농협 099-01-000054 (예금주:광명문화원)
- 문의 및 접수
광명문화원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22-1 시민회관 3층
Tel. 680-6269/2618-5800 Fax. 688-4385
Homepage : www.gmcc.or.kr
(문화의집) Tel. 687-0556 Fax. 687-0557

광명문화원 회원

광명문화원 회원여러분의 문화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최연순
임정순
강옥영
김선아
박순환
최분섭
신춘심
윤순남
이애영
박상대
김귀남
노희숙
이미라
조봉자
박미우
이혜숙
이경희
김현숙
김미순
고미정
장영자
박병일
박우진
박필전
김남이
양난숙
김영선
이수연
안병희
조영숙
오금순
이훈자
권효근
한순자
전태훈
김명심
김수아
방미경
유효미
최현주
김성자
고미정
곽인자
김현숙
황명숙
김미순
이홍자
신성은
김길자
김현자

※ 상기 명단은 회비 납부자 명단이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경기도평생학습축제



- 주 최 : 광명시, 광명교육청
- 주 관 : 광명시평생학습원
-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경기평생교육정보센터
- 기 간 : 2002년 10월 18일(금) ~ 20일(일)
- 개막식 : 2002년 10월 19일(토) 11:00 시민회관
- 장 소 : 광명시 일원(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잔디마당, 평생학습원)
- 문 의 : 광명시평생학습원
Tel. (02)2619-6148 Fax. (02)680-6386
<http://kmc21.net/kmlcc>

주요프로그램

- **의전행사** 개막식
- **학술행사** 평생학습의 발원지 덴마크의 석학
Helge Hansen 초청 국제 심포지엄
“대상의 변화에서 패러다임의 변환으로”
- **축제마당** 학습동아리 발표
평생학습 퍼레이드
찾아가는 인형극, 마임, 뽀에로,
춤추는 인형 만들기
- **기획공연** 청소년을 위한 교육연극 “하루 이야기”
시, 노래, 나팔꽃 이야기 콘서트
- **체험마당** 국립국악원 상임지휘자 김철호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체험
도예가 이사설, 공예가 박두레,
이학준과 함께하는 도자, 짚풀,
철사 공예체험발도로프 인형 전시 체험
- **경연마당** “세대공감” 가족 컴퓨터 경연대회
- **참여마당** 시민 초청 강연회
중국 생활판화 전시
가족공연 생사의 동물 사육제

광명뉴스

egmnews.com

지역언론의 새 장

광명뉴스가 열어가겠습니다.

Home Sitemap

지방자치 | 사회 · 경제 | 교육 · 문화 | 여성 · 환경 | 인물 | 사건 · 소식

광명의 소식은 인터넷광명뉴스에서

www.egmnews.com



다달이 여는 나팔꽃콘서트

2002

시·노래 나팔꽃 콘서트



피아노의 흑과 백은 두음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정음표보는 同伴을 가르칩니다. 화음과 調和의 方法을
이야기 해줍니다. 이적

출 연 진

7.27(토) 1회 안도현, 김원중, 배경희, 이지상, 홍순관, 백창우, 이수진
8.31(토) 2회 김용택, 백창우, 김현성, 김은희, 이수진, 홍순관
9.28(토) 3회 도종환, 안치환, 이수진, 김현성, 김원중, 백창우, 홍순관
10.19(토) 4회 정호승, 배경희, 김원중, 전경옥, 류형선, 이지상, 홍순관
11.23(토) 5회 안도현, 정호승, 김현성, 이지상, 안치환, 이수진, 백창우, 홍순관

※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kmc21.net/kmcllc>(광명시평생학습원)

문의 02) 2619-6148(303) 장동만

홈페이지 <http://www.gmcc.or.kr>(광명문화원)

문의 02) 2618-5800 임재춘

※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연 10분전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께서는 5:30~6:30까지 좌석을 배정하여 드립니다. 그 이외에
시간에는 예약이 자동취소 되오니 양해바랍니다.

주최 : 광명시

주관 : 광명시평생학습원 / 광명문화원

후원 : 인터넷광명뉴스(www.egmnews.com)